

---

# 정책참고자료

---

2016-16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 목 차



## 1 국민안전처

안전사각지대 소교량, 농로 등도 법정시설로 관리한다 ————— 4

해수욕장 현장점검으로 물놀이 사고 완벽 대비 ————— 8

## 2 국민권익위원회

‘전통시장 공영주자창’ 위탁관리 투명해진다. ————— 11

## 3 기획재정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 및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  
개최 ————— 14

## 4 교육부

추경 예산안 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조원 증액 ————— 20

## 5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산업에 날개를 달다 ————— 23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벤처 성과 본격화 ————— 36

## 6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 49

‘2018 강원특선음식 30선’ 으로 올림픽관광객 입맛 사로잡는다 ————— 52

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안전환경 조성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찰청간  
업무협약 체결 \_\_\_\_\_ 37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식품기업의 신성장 동력” \_\_\_\_\_ 73

8 환경부

한강수계 9개 댐 부유쓰레기, 전량수거 \_\_\_\_\_ 77

태백산국립공원 해발 1,000m 이상 고원지대 여름 야생화의 천국 \_\_\_\_\_ 83

9 고용노동부

전국 41개 대학, 청년 취업지원 위해 머리 맞댄다 \_\_\_\_\_ 89

1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여름방학은 “다(多)재다능 프로그램” 과 함께 \_\_\_\_\_ 97

11 국토교통부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망 구축’ 에 민간·공공 협약 \_\_\_\_\_ 100

12 해양수산부

강릉 금진항, 수산물 유통 및 관광 중심지로 새단장 \_\_\_\_\_ 108

## 안전사각지대 소교량, 농로 등도 법정시설로 관리한다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7. 25일 시행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교량,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오는 7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 법이 시행되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물 설치·관리기준과 안전점검·보수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체계적인 정비도 가능해진다.
    - \* 소규모 공공시설 : 세천,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농로 / 5종, 105,837개소(2015. 1월 기준)
- 매년 집중 호우 시 소교량,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은 물이 흐르는 단면이 작고, 시설이 노후하여 주변과 하류지역의 주택 파손, 농경지 침수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03~'12) 태풍·호우 등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8,425억원에 이르고 복구액도 1조 4,974억원이 소요되는 등 재정적 낭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 또한 '14.8.3일 집중호우 시에는 청도군 신원리 인근 하천을 횡단하는 소교량(세월교)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앞으로 국민안전처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 10만6천여개를 대상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집중호우 시에는 청도군과 같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위험시설에 대한 통행 제한 등을 실시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선제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 법률 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대장 작성, 안전점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참고 1**

**소규모 공공시설 종류**

**① 세천**

- 소하천정비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하천



**② 소교량**

-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작은 교량



**③ 취입보**

-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을 가로막아 만드는 시설



**④ 낙차공**

- 유량 확보 및 세굴방지를 위한 하상유지시설



**⑤ 농로**

-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공용되는 도로



**⑥ 마을진입로**

- 마을을 연결하거나 마을 안길중 비법정 도로



**참고 2**

**소규모 공공시설 현황** (2015. 1월 기준)

(단위 : 개소)

시도	계	세 천	소 교 량	취 입 보	낙 차 공	농 로 (마을진입로)
합계	105,837	17,415	55,785	5,571	19,775	7,291
서 울	-	-	-	-	-	-
부 산	12	5	7	-	-	-
대 구	456	92	66	92	206	-
인 천	296	50	176	-	52	18
광 주	24	11	3	-	10	-
대 전	743	21	374	63	261	24
울 산	386	48	258	4	61	15
세 종	985	61	643	58	86	137
경 기	7,290	1,269	4,620	296	758	347
강 원	10,964	1,974	6,162	306	1,675	847
충 북	16,556	3,075	8,199	596	3,550	1,136
충 남	15,448	1,663	8,366	652	3,480	1,287
전 북	7,105	1,038	3,806	358	1,217	686
전 남	11,725	1,526	6,611	1,021	2,058	509
경 북	16,608	3,033	8,955	1,200	2,428	992
경 남	16,524	3,444	6,968	925	3,933	1,254
제 주	715	105	571	-	-	39

## 해수욕장 현장점검으로 물놀이 사고 완벽 대비

### - 해경본부 지휘부로 점검반 편성 해수욕장 안전점검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여름 휴가철 최성수기인 7. 26부터 8.4까지 해운대, 대천 등 전국 주요 7개 해수욕장에 대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7.26(화) 해경조정관이 부산을 시작(해운대, 광안리)으로 해양경비국장이 인천(을왕리, 왕산), 해양장비기술국장이 보령(대천), 해양오염방제국장이 동해(경포대, 망상)를 점검할 계획이다.
  - 지자체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과 안전관리요원 인력배치, 장비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도 격려할 예정이다.
    - 또한 해경본부의 안전관리지침(안전관리자 지정, 상황반 운영 등)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와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업 시스템도 점검한다.
    - 해상구조대와 안전관리요원에게 현장 대원의 초기대응·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물놀이객의 음주수영 금지, 개장시간 내 입욕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할 계획이다.
  - 특히,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해경의 해상구조대\* 인력·장비 배치 현황과 각 해경서에서 구성·운영 중인 안전지원반\*\*이 지자체 해수욕장 안전관리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 해상구조대 : 85개소 지정해수욕장에 일일 인력 349명 · 장비 170대 배치하여 해상을 중점적으로 안전관리

\*\* 안전지원반 : 전국 해경서에 구조·구급 능력 우수 직원 126명으로 구성되어 지자체 해수욕장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지원

구 분	해상구조대	인력 / 1일			장비(대) / 1일
		계(명)	육상	해상	
'16년	85개소	약 350명		약 350명	약 170대
'15년	96개소	약 400명	-	약 400명	약 170대
'12년~'14년	-	약 870명	약 580명	약 290명	약 170대

○ 또한, 익수자 등 사고 발생 시 지자체 · 소방 및 해경 등 관계기관 협력 · 대응 체계와 현장 안전관리요원의 구조 역량을 점검하여 안전과 관련된 미비한 사항은 즉시 개선할 방침이다.

□ 국민안전처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휴가철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국장단,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장점검 계획

## □ 현장점검 일정

- 점검기간 : '16. 7. 26(화) ~ 8. 4(금)
- 점 검 자 : 조정관, 각 국장
- 일자 및 점검대상

점검자	조정관	경비국장	장비국장	방제국장
일 자	7.26(화)	7.29(금)	8. 2(화)	8. 4(목)
점 검 대 상	부산서 (해운대, 광안)	인천서 (을왕리, 왕산)	보령서 (대천)	동해서 (경포대, 망상)

\* 국장단 일정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가능

## ○ 주요내용

- 해상구조대, 지자체 인력·장비 운영 현황 및 지원 체계 확인
- 안전관리지침(안전관리자 지정·상황반 운영 등) 이행실태 지도·점검
- 해경·지자체 등 현장근무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 점검 해수욕장 현황

해수욕장		부산서		인천서		보령서	동해서	
		해운대	광안리	을왕리	왕산	대천	경포대	망상
지원 현황 (일일)	인력	6명	8명	4명	4명	11명	6명	6명
	장비 (수오/사오)	4대 (3/1)	4대 (3/1)	2대 (1/1)	1대 (1/0)	5대 (3/2)	3대 (2/1)	4대 (2/2)
이용객 (3년 평균)		500만 이상		10만 이상		500만 이상		300만 이상

## 2

## 국민권익위원회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투명해진다

권익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

- 지방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위탁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수익금의 관리·정산 및 사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인회에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중소 기업청, 22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전통시장 건물, 주차장, 화장실 등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연간 평균 1,400여 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전통시장의 주차 불편을 지적하고 있으며, 주차장을 운영하는 상인회는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 사후관리의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 주요 의견 >

#####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 및 소비자 의견조사 >

-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주차장(24.6%)이라고 답변 (대한상의, '11년 11월)

#####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주요 의견 >

- 전통시장은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함, 주차 및 주변 환경이 원활하면 굳이 대형 마트를 가지 않게 됨,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불편함 때문임 (정책토론, '15년 2월, '14년 10월)

□ 이에 권익위가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 (무상위탁)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자체가 수익발생 시설을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6개 지자체는 이를 가능하도록 조례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실제 상인회에 위탁된 163개 주차장 중 47개 주차장(29%)이 무상으로 위탁운영 되고 있었다.

\* 제22조(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수익발생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익금 미정산) 상인회에 위탁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시, 주차장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조례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7개 지자체, 12개 시장은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아 관련 내역을 알 수 없었다.

또한 영수증 증빙 등이 없는 형식적 정산에 그치거나 주차장 회계를 상인회 운영과 분리하지 않고 동일 회계에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 (수입·지출 승인 소홀) 상인회에 위탁중인 3개 주차장에서 주차장의 수입과 지출을 승인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정산하고 있지도 아니함 (감사원감사, '15년 1월)

· (수익금 정산 미이행)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나 3개 지자체는 이행하지 않음(정부합동감사, '15년 12월)

· (회계 처리 미흡) ○○시장 주차장 관리·운영현황 점검 결과 지출시 회계 증빙서류 보관 미흡, 상인회 운영회비 통장과 겸용하고 있어 수입·지출을 명확하게 파악 곤란(지자체 지도감독 결과, '14년 12월)

- (수익금 목적 외 사용) 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사업에 사용해야 하나, 상인회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 (수익금 타용도 사용) 상인회가 주차장 수익금 1,300여만원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민간(시장상인회) 자부담금 대출금 상환에 충당하는 등 타용도로 사용(감사원감사, '15. 1.), 수익금을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상인연합회 회비 지출, 상인회 운영비)한 사례도 발생(지자체 지도감독 결과, 15년 11월)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수익발생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운용중인 지자체는 무상위탁 조항을 폐지하고, 상인회에 수익발생 시설을 위탁 운영 시 위탁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주차장 수입·지출 정산 시 영수증 증빙과 함께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분기마다 제출토록 했다.
  - 주차장 수익금을 상인회 운영비와 별도로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 사용 시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수익금이 전통시장에 재투자되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그 동안 전통시장 방문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던 주차불편 문제를 완화해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 및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 개최

◇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통해 청년·여성 6만명  
이 더 쉽게 더 좋은 일자리로 가도록 지원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27일(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 배경 및 기본방향 》

- 정부 출범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취업자 증가, 고용률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청년·여성의 고용애로는 중장년·남성에 비해 여전히 큰 상황

\* 고용률('15년) : 중장년(30~64세) 74.3% vs. 청년(15~29세) 41.5%

실업률('15년) : 중장년(30~64세) 2.6% vs. 청년(15~29세) 9.2%

\*\* 고용률(15~64세,'15년) : 男 75.7% vs. 女 55.7% / 실업률 : 男 3.8% vs. 女 3.7%

- 구조개혁 지연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로막혀 있고,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정책 실효성·체감도가 저조
- 이번 대책은 청년·여성이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춤
- 현장의견 수렴 결과 및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관점에서 일자리정책을 내실화·효율화
-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실

제 취업까지 연결하는 적극적 역할(‘일자리 중개인’) 담당

⇒ “4만명 취업연계·지원 + 2~3만명 추가혜택” 효과 기대

## 《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주요 내용 》

### 1. 기업 수요를 발굴하여 취업 연계 ⇒ 일자리 중개인 역할

① (청년 채용의 날)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준별로 기업 구인 수요를 구직자와 매칭하는 행사 개최

-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 100% 면접 원칙,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면접 피드백 제공 등 행사 참여만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구성

② (분야별 채용행사) 전 부처가 나서 서비스·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개혁·투자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 특화된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16년 60여차례의 채용행사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연계

- \* (예) (에너지) 소규모 전력거래 허용 / 전력거래중개사 / 에너지신산업 채용박람회 (70명, 10월)  
(관광) 관광호텔 건립규제 완화 / 호텔리어 / 관광산업 채용박람회(300명, 9월)

③ (고용디딤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6개 전담 대기업을 모두 참여하고, 공공기관은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참여 확산\*

- \* '16년중 16개 대기업, 17개 공공기관에서 총 9,400여명 추진 계획

④ (사회맞춤형 학과) 법률적 근거(산학협력법) 마련 및 학과 개설 대학·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강화로 확산\*\*

- \* [대학] 각종 산학협력 재정사업 대상선정시 우대, [기업] 투자비 세액공제(2~25%)

\*\* 참여 학생 수 : ('15년) 7,421명 → ('17년) 1.5만명 → ('20년) 2.5만명

## 2.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 청년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 및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

- ① (자산형성 지원)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자산형성 지원 모델로 추진(가칭 '청년취업 내일공제', '16년 1만명')

\* 인턴 취업 후 중소기업에 2년 근속시 최대 1,200만원 이상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지원('16년 1만명 지원)

- ②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경감)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일반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 거치·상환기간 연장

-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최대 2년), 연체이자 감면

## 3.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취·창업 지원·일자리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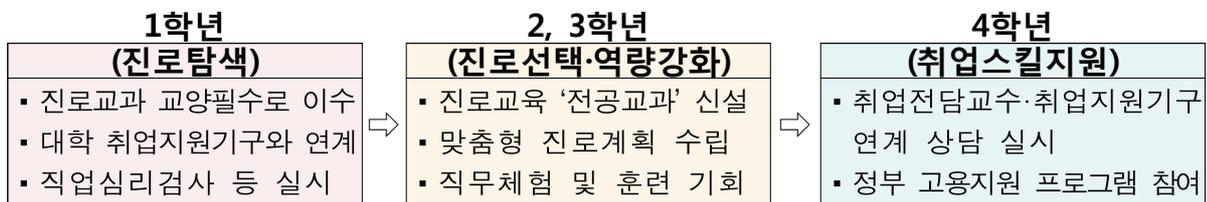
⇒ 청년의 조기입직 지원

- ① (진로지도 및 취창업 선도대학 육성)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을 실시

-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PRIME, '16년)에 진로·취업 지원 운영모델을 시범실시 후 확산

- 워크넷에서 공공·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종합·가공하여 제공 후 대학별로 맞춤형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진로·취업지원 운영모델(案)



- 창업선도대학, LINC대학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졸업생을 2-Track으로 지원하는 대학 창업지원 모델을 보급 후 확산

- 대학 재학생(2~3학년) 중심 직무체험(채용 미연계형) 프로그램 신설('16년 1만명)

②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홍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하고, 기업 정보를 공개(5월)

\* 신입사원 급여수준,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 청년 희망 근로조건을 선정기준에 추가 (891개소 선정) → 채용 정보 제공 등 실질적 관리

#### 4.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달 ⇒ 원스톱 맞춤형 고용지원 구현

① (수요자 중심 일자리정보 기반 구축) 정부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의 사용자 편의성 확충('16년)

- 워크넷을 중심으로 산재된 정보시스템을 연계,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일자리포털 구축('17년)

② (원스톱 맞춤형 지원)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전달기관	대상	기관별 특화서비스	비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청년	▸ 지역기반 일자리 사업 발굴 및 기획 ▸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17개소
대학별 취업지원기구*	대학생	▸ 대학내 고용지원 기능 연계· 통합을 통한 원스톱 고용지원	'16년 140개소
새일센터	여성	▸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	147개소
고용복지+센터	일반	▸ 취업지원, 실업지원 등 종합 고용복지서비스 제공	현 40개소 (*17년 100개소)
청년희망재단	청년	▸ 정부정책 사각지대 보완	

대학창조일자리센터('16년 41개소), 대학 취업처·인재개발원 등

####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

① (경력단절 예방)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월20만원 → 월30만원)

- 대체인력 구인·구직정보 통합관리,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에 인수인계 기간 포함 등

②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적용

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50%→100%)

- 보건·복지 분야의 제도개선\*, 업종별 협회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재취업 수요 발굴

\* 야간 전담 간호사 건강보험 수가 인상('16.8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16.5월), 요양시설 인력규정 개정('16.7월) 등을 통해 4,200여개 일자리 발굴

- ③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 전수조사('16.4~6월)를 통해 잠재수요를 발굴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현행 월 최대 40만원) 인상, 사립학교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등 활성화 방안 추진

- ④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 모범기업 선정·발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제고\*

\* [현행] 5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 중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시행계획서만 관리·취합

→ [개선] 평가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고려하고, 시행계획 이행 부진시 명단공표

◇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의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를 개최하여 기관 역할분담 방안 논의

## 《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 개요 》

- ① 일 시 : '16.4.27일(수) 10:00~11:00
  - ② 장 소 :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10층 대회의실
  - ③ 목 적 : 관계기관의 역할 명확화를 통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의 실효성 확보
  - ④ 토론안건 :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청년 채용의 날 활성화, 여성창업 지원 내실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방안
  - ⑤ 참석자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청년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청년구직자 2명, 여성창업가 1명,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 배석 : 광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  
광주 고용복지+센터 소장, 상명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

## 추경 예산안 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조원 증액

- 2016년 교부금 총액은 43.2조원으로 전년대비 3.8조원 증가
- 교육부, “재정여건 대폭 개선, 누리과정 예산 반드시 편성해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7월 22일(금)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정부 추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 1.9조원 증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추경 예산은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산을 상회함에 따라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5조원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교부금도 1조 9,331억원 증액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상 비율에 따라 보통교부금 1조 8,558억원(96%), 특별교부금 773억원(4%)이 증액 편성되었다.
-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 증액되는 교부금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민생 안정 등의 추경 취지를 감안하여 누리과정과 교육환경개선 등의 용도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특히, 현재까지 법정 의무지출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동 재원 등을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현황 (7.21. 기준, 계획포함)>**

- ▶ 전액 편성(8) :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경북
- ▶ 일부 편성(6) : 서울, 인천, 강원, 전남, 제주
- ▶ 어린이집분 전액 미편성(3) : 광주, 경기, 전북
- ※ 총 소요액 4.0조원 중, 2.9조원 편성, 1.1조원 미편성

- 교부금이 증액되더라도 어린이집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일부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 교육청은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 그 동안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하다가, 교부금이 대폭 증액되어 재정 여건이 확충되었음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또한, 이번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분이 '17년, '18년 교부금을 당겨서 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이번 추경 재원은 올해의 세수 여건 개선을 반영한 것이므로 "'16년 교부금이 순증한 것"이며, 내년 또는 내후년 교부금 감액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7월 26일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심의를 거쳐 8월 12일 의결될 예정이며,
- 교육부는 추경 예산의 경기부양 효과 제고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증액된 교부금을 교육청에 교부할 계획이다.

## 참고

## 2016년 추경 예산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총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1조 9,331억원 증액

(단위: 억원)

구분	'15년 예산	'16년 예산				
		본 예산		추경		
			'15년 대비		본예산 대비	'15년 대비
총계	394,056	412,284	18,228	431,615	19,331	37,559
□ 보통교부금	380,186	397,841	17,655	416,399	18,558	36,213
□ 특별교부금	13,870	14,443	573	15,216	773	1,346
- 국가시책 (60%)	8,322	8,666	344	9,130	464	808
- 지역현안 (30%)	4,161	4,333	172	4,565	232	404
- 재해대책 (10%)	1,387	1,444	57	1,521	77	134

### □ 보통교부금 : 1조 8,558억원 증액

○ 내국세분 : (9조 5,370 억원\* × 20.27%) × 96% = 18,558 억원

\* 추경시 내국세 증액 조정분

○ 교육세분 : 0백만원 (추경시 변동 없음)

### □ 특별교부금 : 773억원 증액

○ 국가시책 : (9조 5,370 억원 × 20.27%) × 4% × 60% = 464 억원

○ 지역현안 : (9조 5,370 억원 × 20.27%) × 4% × 30% = 232 억원

○ 재해대책 : (9조 5,370 억원 × 20.27%) × 4% × 10% = 77 억원

### □ 집행용도

① 누리과정 미편성액 해소(법정의무 이행)에 최우선 사용

② 추경 목적(경기부양, 일자리창출) 달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 정보보호산업에 날개를 달다!

- 정보보호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R&D 기술공유 협의회」 출범 -

-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기업 육성 1,063개, 투자유치 2,596억원 등 성과 창출
- ◆ 판교창조경제밸리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 등을 통해 ‘창업→성장→글로벌 진출’ 등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업·벤처기업 창출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3년여간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틀을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관계부처와 함께 △창조경제를 통한 제2의 창업·벤처 붐 확산, △판교창조경제밸리를 글로벌 창업과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 △지능정보 기술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창조경제를 통한 제2의 창업·벤처 붐 확산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기업 육성 1,063개, 투자유치 2,596억원 등 성과 창출  
< 주요성과('16.6월말 기준) >

창업기업 육성	중소기업 혁신지원	총계	투자유치	창업기업 매출신장	창업기업 신규채용
1,063개사	1,480개사	2,543개사	2,596억원	1,340억원	1,120명

-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시장 신설, 스톡옵션제도 개선,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 크라우드펀딩 도입, 액셀러레이터 제도화 등 창업지원제도를 개선하였고,
- 성장단계별, 분야별 정책펀드 확충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창업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을 공급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 또한,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창업활동의 구심점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지역특화산업 및 전담 대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 온라인에는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사업화를 위해 숙성시켜 나가는 아이디어 플랫폼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http://www.creativekorea.or.kr))을 구축·운영해오고 있다.

\* 방문자 수 3,159,385명, 회원 수 109,447명, 아이디어 제안 수 35,862건('16.6월말 기준)

- 이와 같은 창조경제 추진과 창업·벤처 지원정책 시행에 힘입어 최근 국내 창업 열기가 확산되는 등 제2의 창업·벤처 붐이 확산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 무엇보다도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15년 벤처기업 3만개, 대학 창업동아리 4천개, 벤처투자 규모 2조원 시대를 개막하였고, 매출 1천억원 벤처기업도 460개에 이르는 등 창업·벤처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 벤처기업 수(개) : ('13) 29,135 → ('14) 29,910 → ('15) 31,260  
대학 창업동아리 수(개) : ('13) 1,833 → ('14) 2,949 → ('15) 4,070  
신규 벤처투자액(억원) : ('13) 13,845 → ('14) 16,393 → ('15) 20,858

-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원스톱서비스, 멘토링 등 다양한 창업 지원활동을 통해 창업기업 육성 1,063개, 중소기업 혁신지원 1,480개, 투자유치 2,596억원을 달성하였고, 이에 따라 창업기업의 매출도 1,34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1,120명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 앞으로는 지난 7월초 무역투자진흥회의(7.7일)에서 발표한 「본 글로벌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에 따라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환경을 중점 조성할 예정이다.
-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지원에 치중되었던 지금까지의 정부 지원 방향을 맞춤형 글로벌 창업지원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 글로벌 TIPS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 글로벌혁신센터(KIC)를 중심으로 권역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스타트업 정보를 '스타트업 코리아(www.startupkorea.com)'에 통합 등재 하며, '창조경제 범부처 글로벌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국내 스타트업들이 해외 투자자들을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한다.
- 'K-startup 글로벌 협의회' 운영,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글로벌 사업팀을 활용한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등 정책 인프라도 강화한다.

## 2 판교창조경제밸리를 글로벌 창업과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

- '16.3월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 등을 통해 '창업→성장→글로벌 진출' 등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20년까지 첨단기업 1,600여개, 고급인력 10만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발전 기대
  - \* 공공 및 민간의 300개 신규 창업공간을 통해 향후 10년간 1,000개 이상 창업 기대

-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판교를 글로벌 창업과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14년부터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SW융합 기술개발, SW아카데미 등을 지원하는 판교 SW융합클러스터 사업('14~'19, 220억원)을 추진해 왔으며,
- 올해 3월에는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 내에 첨단 ICT 창업·혁신 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글로벌기업(SAP) 등이 집적된 스타트업 캠퍼스 (3.22일)를 개소하여 1밸리 조성을 완료하였다.
-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첨단ICT 기업 등이 밀집된 판교창조 경제밸리는 기업수, 매출액, 임직원수 등에서 양적·질적으로 급성장

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선도하는 **첨단기술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다.

\* '15년 기업 수는 1,121개로 '11년 대비 13배 증가, 총 매출액은 70조원으로 '14년 대비 29.8% 증가, 임직원 수는 72,820명으로 '14년 대비 25.14% 증가

- 특히, **스타트업 캠퍼스**에 **스타트업 46개사**, **액셀러레이터 및 투자사 5개사** 등이 입주를 완료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 K-ICT 본투글로벌센터와 K-ICT 창업멘토링센터 등을 통해 **4개월의 짧은 기간임에도 694개** 기업을 지원하여 **투자유치 297.6억원**(해외 14.1억원), **사업계약 65건**(해외 3건), **법인설립 20건**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 스타트업캠퍼스 4개월 주요성과 (단위: 건, 억원 / 7.15일 기준) >**

구 분	지원실적		투자유치(M&A 포함)				사업계약연계		특허출원		법인설립	
	대상	건수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K-ICT본투글로벌센터	206	248	3	13.7	7	240	3	0	3	0	0	0
K-ICT 창업멘토링센터	488	2,423	1	0.4	13	43.5	-	62	-	20	-	20
<b>합계</b>	<b>694</b>	<b>2,671</b>	<b>4</b>	<b>14.1</b>	<b>20</b>	<b>283.5</b>	<b>3</b>	<b>62</b>	<b>3</b>	<b>20</b>	<b>0</b>	<b>20</b>

※ 판교 SW융합클러스터 실적('14~'15) : 신규고용 3,137명, 매출증가율 9.59%, 창업기업 지원 수 48개, 인력양성 977명

- 앞으로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18년까지 인근 도로공사 부지 등 신규부지를 조성하여 창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공공기관이 접적된 창조공간, 기업 발전단계별 맞춤형 공간, 글로벌 네트워크 등이 융합된 소통공간 등으로 구성된 **2밸리**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 3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3.17)'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연구소 설립 및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
-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업·벤처기업 창출
- '16.10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 수립

- 미래부는 그동안 '90년대부터 쌓아온 세계 최고의 ICT 역량을 바탕으로 「SW중심사회 실현전략(14.7월)」, 「K-ICT 전략(15.3월)」 등을 통해 SW,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분야 등을 키워오면서 지능정보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져왔다.
- 또한, 지난 3월에는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3.17일)」을 수립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기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0월까지 민간 주도의 지능정보기술 연구소를 설립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 전문지식DB, 지능정보SW 등 지능정보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창업·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지능정보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 지능정보산업 전문인력(데이터분석 전문가, 인공지능SW 개발자 등)의 선제적 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 대학ICT연구센터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한편, 창조경제 생태계 속에서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탄생·성장하고 있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역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대표적으로 마인즈랩(14.1월 창업, 대표 유태준, 음성인식·대화처리 솔루션)은

ETRI의 기술이전을 통해 창업하였고, 이후 경영 위기 속에서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으로 네이버로부터 투자(10억원)를 유치하여 '15년 2.5억원이었던 매출이 '16년 상반기에만 1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 **뷰노코리아**('14.12월 창업, 대표 이예하, 의료영상판독 솔루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등을 통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고, 최근 신기술 규제개혁으로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가 합리화\***되어 제품 출시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며, 현재 **식약처 인허가 준비 및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영상판독 보조 SW** 출시를 준비 중이다.

\* 의료영상 내 이상부위 검출 표시를 통해 의료인의 진단결정을 보조하는 장치에 대한 분류 신설('16.7월)

- 미래부는 앞으로 지능정보산업의 발전과 함께 **과거 세 차례의 산업혁명에 비견될 정도의 큰 구조적 변화(제4차 산업혁명)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제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능정보사회 종합전략을 금년 10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3년여간 창출된 창조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① 창조경제 플랫폼 활성화

- 지자체와 전담기업이 지원하는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 완료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및 혁신의 거점으로 발전 중

\* 멘토링·시제품 제작·기업 보육·투자유치 등 활발히 진행, 금융·법률·특허 원스톱 지원

< 창조경제 혁신센터 주요성과 총괄('16.6월말 기준) >

창업기업 육성	중소기업 혁신지원	총계	투자유치	창업기업 매출신장	창업기업 신규채용
1,063개사	1,480개사	2,543개사	2,596억원	1,340억원	1,120명

- 전담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내 창업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의 구심점'으로 역할 강화

\* 지역 내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등과 역할을 분담·협력체계 구축

- 지역특화산업 육성(스마트 농업, 스마트 제조업 등)을 위해 정부부처 사업과 연계, 맞춤형 원스톱 지원 등을 통한 '지역 혁신거점'으로 육성 추진

- 창업·기업혁신 등 새로운 인력수요 창출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총량 확대를 위해 혁신센터 내에 고용존 구축('16.3)

②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창업 촉진

- (창업 지원제도 정비)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시장 신설·보완, 스톡옵션제도 개선,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 클라우드펀딩 제도화, 액셀러레이터 제도화 등 지속추진

- (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성장단계별, 분야별 정책펀드 확충\*,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창업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공급, 해외진출 지원 등 지속확대

\* (창업초기) 기술신용평가 자금 27.9조원,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5개 펀드, 4,510억원) / (성장단계) 미래 성장산업 자금 67.6조원, 벤처 펀드 1.8조원 조성 / (재도전) 재창업자금 확대(향후 5년간 최대 1.5조원)

-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기업의 다양한 기술애로를 단일창구(대표전화 1379)를 통해 연계·지원하는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본격 추진('15.7월~)
- \* 미래부가 직접 운영하고 출연(연), 과기 특성화대 등 40개 전문기관이 참여

- (공공기술 창업 활성화) 공공기술기반 창업기업\* 402개 설립('13~'16.6월말 기준),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16.8월말 완료 예정) 등
- \* 대학·출연(연)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특성화대 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 등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소기업 설립주체를 글로벌트러니어사업단, 지자체/공기업 출연(연) 등으로 확대 예정

### ③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신산업·신시장 창출

- (기술개발 및 상용화) 연간 약 1조원의 정부 R&D 사업을 통해 신기술 개발과 기업의 상용화를 지원
- \* (5G) 초고속 근접통신, 소형셀 기지국 SW, (스마트자동차) 4채널 스캐닝라이다 핵심기술, 절대위치 50cm 수준의 자율주행 정밀지도 생성 SW 시제품, (실감형 콘텐츠) 스크린 X, (융복합소재) 유리섬유 복합소재 기반 플라스틱 CCB 등
- (규제개선) 스마트카, IoT 등 신기술·신산업 저해 규제를 지속 발굴(약 100여건)·개선하여 기업의 참여를 촉진
- \* 비면허대역 주파수 출력기준 개선(10→200mw),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역 및 드론을 활용한 사업범위의 Negative 전환 등 신기술 규제 개선
- (실증·시범사업) 5G, 스마트자동차,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을 실증·시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국내최초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연('15.11, 코엑스), 지하철 8호선 5G 시범서비스 시연('16.1) 등
- (세제지원)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대상에 미래성장동력 관련 기술 10개를 추가(65개→75개)하여, 민간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 \* 대상 기술에 대해 R&D 투자액의 30%(중견·대기업 20%)를 세액공제
- (금융지원) 정책자금(80조원)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기업에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MoU 체결\* 등 추진
- \* 정책금융협의회(산은 등 9개 기관)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연, R&D 지원 기관 MOU 체결('16.6.27)

□ 개 요

- 창업·성장 등 기업 발전단계에 맞춘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등 소통·교류 환경을 구축하여 창조경제의 랜드마크 조성

□ 주요 추진내용

- (1밸리)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 내에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입주공간(200개 이상), ICBM 관련 창업·혁신 지원기관,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글로벌 기업(SAP) 등을 집적한 ‘스타트업캠퍼스’ 구축·운영('16.3월)
  - ‘창업 → 성장 → 글로벌 진출’ 등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
    - \* (초기) 창업멘토링센터 → (성장) 민간 VC·액셀러레이터 → (글로벌) 경기혁신센터·Born2Global센터
  -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인재 채용, 해외 스타트업 국내유치 등 글로벌 창업 공간으로 육성 \* 스타트업 Outbound·Inbound 지원 등 15개 프로그램 운영
- (2밸리) 인근 도로공사 부지 및 그린벨트 해제 용지에 기존 공간의 부족으로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기능 및 시설 확충('16.2월~'20년)
  - 미래부·국토부·중기청·문체부 등이 공간 구축 및 기능 구현을 위해 협업
  - ➔ 미래부는 ‘창조공간(기업지원허브)’에 혁신기술Zone(융합클러스터, 보안클러스터, 고성능컴퓨팅(HPC) 이노베이션허브), ICT-문화융합Zone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인큐베이팅을 위해 공공 지원기관이 집적된 창조공간(기업지원허브) 조성(①)</li> <li>◇ 기업 발전단계별 맞춤형 공간 조성(②③④)</li> <li>◇ 글로벌 네트워크, MICE·상업·문화가 융합된 소통교류공간 조성(⑤⑥)</li> </ul>		<table border="1"> <tr><td>①창조</td><td>(2만㎡)</td></tr> <tr><td>②성장</td><td>(4만㎡)</td></tr> <tr><td>③벤처</td><td>(6만㎡)</td></tr> <tr><td>④혁신기업</td><td>(8만㎡)</td></tr> <tr><td>⑤글로벌</td><td>(7만㎡)</td></tr> <tr><td>⑥소통교류</td><td>(3만㎡)</td></tr> <tr><td>* 공공시설</td><td>(13만㎡)</td></tr> </table>	①창조	(2만㎡)	②성장	(4만㎡)	③벤처	(6만㎡)	④혁신기업	(8만㎡)	⑤글로벌	(7만㎡)	⑥소통교류	(3만㎡)	* 공공시설	(13만㎡)
①창조	(2만㎡)															
②성장	(4만㎡)															
③벤처	(6만㎡)															
④혁신기업	(8만㎡)															
⑤글로벌	(7만㎡)															
⑥소통교류	(3만㎡)															
* 공공시설	(13만㎡)															
<p>신규 조성부지(창조+성장+글로벌·교류) 現 테크노밸리 (Business+해외 진출)</p>		<p>판교 창조경제밸리</p>														

□ 주요 성과

◆ (기대효과) '20년까지 첨단기업 1,600여개, 고급인력 10만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

\* 공공 및 민간의 300개 신규 창업공간을 통해 향후 10년간 1,000개 이상 창업 기대

< 판교 창조경제밸리 전체 성과 >

-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판교 소재 기업수, 매출액, 임직원수 등 양적·질적으로 급성장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선도하는 첨단기술 클러스터로 발전
  - '15년 기업 수는 1,121개로 '11년 대비 13배 증가, 총 매출액은 70조원\*으로 '14년 대비 29.8% 증가, 임직원 수는 72,820명으로 '14년 대비 25.14% 증가
- 특히, '15년 1년 신규고용이 8,940명에 달하고 여성인력 비중이 전체의 약 21.9%(약 1만6천여명), 연구인력 비중이 45.3%(약 3만3천여명)을 차지
  - ICT 기업 비중이 76.9%에 달하고, 중소기업이 90.9%를 차지

< 스타트업캠퍼스 주요 성과 >

- '16.3월 개소 이후 4개월여간 694개 기업을 지원하여 투자유치 297.6억원 (해외 14.1억원), 사업계약 65건(해외 3건), 법인설립 20건 등 성과 도출
  - 스타트업 46개사, 액셀러레이터·투자사 5개사 입주 후 본격 활동

< 스타트업캠퍼스 4개월 주요성과(단위: 건, 억원 / 7.15일 기준) >

구 분	지원실적		투자유치(M&A 포함)				사업계약연계		특허출원		법인설립	
	대상	건수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K-ICT본투글로벌센터	206	248	3	13.7	7	240	3	0	3	0	0	0
K-ICT 창업멘토링센터	488	2,423	1	0.4	13	43.5	-	62	-	20	-	20
합계	694	2,671	4	14.1	20	283.5	3	62	3	20	0	20

※ 판교 SW융합클러스터 사업('14~'19, 220억원) : 판교 내의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SW융합 기술개발 지원, SW아카데미 등을 지원

- 신규고용 3,137명, 매출증가율 9.59%, 창업기업 지원 수 48개, 인력양성 977명

□ 개 요

- 그동안 우리경제의 위기극복과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ICT 산업의 지속 발전,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산업 육성 정책 추진

□ 주요 추진내용

① 지능정보기술·SW 기반으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속에서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 발표(‘16.3), ICT경쟁력 강화를 위한 ‘K-ICT 전략 2016\*’ 발표(‘16.5)

\* K-ICT 전략(‘15.3) : ICT산업의 재도약을 목표로 ICT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수립, 지능정보기술을 반영한 ‘K-ICT전략 2016’으로 업그레이드(‘16.5)

- (지능정보산업 육성) 민간주도의 지능정보기술 연구소 설립(10월 예정),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8월 예정), 데이터 인프라 조성 등 지능정보산업 전략적 육성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미리 분석하여 향후 도래할 지능정보사회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16.10월 예정)

- (SW중심사회 실현) 초·중등학교 SW교육 강화, SW로 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등을 위한 ‘SW중심사회전략’ 수립·추진(‘14.7)

- SW교육 혁신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SW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R&D 지원\*\* 확대

\* 초중등 SW교육 필수화(‘18년), SW중심대학 확대(‘16년 14개 → ‘19년 목표 30개)

\*\* GCS(Global Creative SW : 유망 SW R&D · 해외진출 등 종합지원, ‘16년 298억원)

②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ICT 전략산업 집중 육성

- (사물인터넷) 실증단지 조성(스마트시티(부산), 헬스케어(대구)), 중소기업 신제품·서비스 개발·실증 지원(‘15년 62건) 등 활성화 기반 조성

- (클라우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15.3), ‘정보보호 대책(‘15.3)’ 등을 수립하여 공공부문 우선 도입 및 민간 이용·확산 기틀 마련

- (빅데이터) 선도형 시범사업 추진('15년 5건),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지원 ('15년 30개사) 등을 통해 전문기업 육성('15년 70건)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
- (디지털콘텐츠·스마트기기)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웨어러블 기기와 VR 등 디지털콘텐츠 기술을 국방·건축·안전·패션 등 각 분야에 적용

### ③ ICT융합 투자확대·규제개혁으로 신산업·신시장 지속 창출

- (융합서비스 확산) 핵심융합 분야 확대\*(6개→10대)하여 다양한 융합서비스 신기술 개발 및 실증·확산을 지원

\* (기존 6대) 의료·교육·교통·도시·에너지·관광 → (추가) 금융·홈·농축수산·제조

\*\* 공공서비스 혁신(11건), 사회현안 해결(8건) 등 총 105개 과제에서 성과

- (융합 규제개선) IoT·클라우드·빅데이터·O2O 등 ICT 융합 신산업 분야 53건 규제 개선 방안 확정\*('16.5월 규제개혁장관회의), 신속처리·임시허가 등을 통해 핵심규제를 지속개선함으로써 민간투자 확대 및 시장활성화 촉진

\* 900MHz대역 주파수 출력 규제 완화('16.5월)로 세계 최초 IoT 전국망 구축 ('16.6월) 및 우리 기업의 이란 원격 가스 검침 시범사업 진출 촉진

### ④ ICT 창업·벤처 육성 지원

- (글로벌 창업 지원)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기관(K-ICT Born2Global센터) 운영 및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16.3월 개소)에 스타트업(46개) 및 투자사(5개) 입주·지원을 본격화하여 창업, ICT 기술혁신, 글로벌 교류 활성화
- (벤처1세대 멘토링) 벤처1세대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창업기업 등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한 멘토링 지원 강화
- (재도전 지원 확대) 재도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프 운영, 재도전 기업인의 역량을 활용한 창업·사업화 지원 확대('16년 80개사)
- (ICT 투자 촉진) Korea IT Fund(KIF, '23년까지 약 1.7조원 조성) 등을 활용하여 지능정보 등 ICT 10대 전략산업에 선도적 투자 추진

< ICT 유망 스타트업 K-Global 300 기업 집중 지원('15~) >

- ICT·융합 분야의 유망 스타업을 선별, 성장단계별·수요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여 성과 창출 가시화

□ 주요 성과

- ◆ ICT 수출액 : 사상 최초로 세계 3위 달성('15년)  
\* ('14년) 중국, 미국, 독일, 한국 → ('15년) 중국, 미국, 한국, 독일
- ◆ ICT 발전지수 : 세계 1위 재탈환('15년, 국제전기통신연합)  
\* ('14년) 2위 (1위, 덴마크) → ('15년) 1위 (2위, 덴마크)

< '15년 ICT 창업·벤처 지원정책 성과 >



- (ICT 전략산업 육성) 융합클러스터와 실증단지 조성, 관련법률 제정, R&D 및 사업화, 전문인력·기업 육성 등을 통해 新산업 시장 창출을 견인, 주요 전략산업의 수출, 기업 수 및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



- (융합 확대) 창조비타민\* 등 대규모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융합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총 139개 과제를 발굴하여 공공서비스 혁신(15건), 사회현안해결(11건), 사업화(29건), 업무효율(20건) 등 성과창출 중

- (체질 개선) '18년 초중등 SW교육 필수화 확정, SW중심대학 등 SW중심사회로의 이행 토대 마련\*, ICT 창업·벤처 지원정책을 통해 수혜기업의 매출, 고용, 투자유치 증가 지원

\* SW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증가로 우수인재 양성 토대 마련, SW관련학과 학생 수 증가·전공 선호도 향상('14년 5.7만명 → '15년 5.9만명)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벤처 성과 본격화

-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기업 육성 1,063개, 투자유치 2,596억원 등 성과 창출
- ◆ 판교창조경제밸리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 등을 통해 ‘창업→성장→글로벌 진출’ 등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업·벤처기업 창출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3년여간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틀을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관계부처와 함께 △창조경제를 통한 제2의 창업·벤처 붐 확산, △판교창조경제밸리를 글로벌 창업과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 △지능정보 기술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창조경제를 통한 제2의 창업·벤처 붐 확산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기업 육성 1,063개, 투자유치 2,596억원 등 성과 창출

< 주요성과('16.6월말 기준) >

창업기업 육성	중소기업 혁신지원	총계	투자유치	창업기업 매출신장	창업기업 신규채용
1,063개사	1,480개사	2,543개사	2,596억원	1,340억원	1,120명

-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업 → 성장 → 회수 → 재도전’의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시장 신설, 스톡옵션제도 개선,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 크라우드펀딩 도입, 액셀러레이터 제도화 등 창업지원제도를 개선하였고,
- 성장단계별, 분야별 정책펀드 확충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창업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을 공급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 또한,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창업활동의 구심점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지역특화산업 및 전담 대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 온라인에는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사업화를 위해 숙성시켜 나가는 아이디어 플랫폼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구축·운영해오고 있다.

\* 방문자 수 3,159,385명, 회원 수 109,447명, 아이디어 제안 수 35,862건('16.6월말 기준)

- 이와 같은 창조경제 추진과 창업·벤처 지원정책 시행에 힘입어 최근 국내 창업 열기가 확산되는 등 제2의 창업·벤처 붐이 확산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 무엇보다도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15년 벤처기업 3만개, 대학 창업동아리 4천개, 벤처투자 규모 2조원 시대를 개막하였고, 매출 1천억원 벤처기업도 460개에 이르는 등 창업·벤처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 벤처기업 수(개) : ('13) 29,135 → ('14) 29,910 → ('15) 31,260  
대학 창업동아리 수(개) : ('13) 1,833 → ('14) 2,949 → ('15) 4,070  
신규 벤처투자액(억원) : ('13) 13,845 → ('14) 16,393 → ('15) 20,858

-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원스톱서비스, 멘토링 등 다양한 창업 지원활동을 통해 창업기업 육성 1,063개, 중소기업 혁신지원 1,480개, 투자유치 2,596억원을 달성하였고, 이에 따라 창업기업의 매출도 1,34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1,120명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 앞으로는 지난 7월초 무역투자진흥회의(7.7일)에서 발표한 「본 글로벌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에 따라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환경을 중점 조성할 예정이다.
-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지원에 치중되었던 지금까지의 정부 지원 방향을 맞춤형 글로벌 창업지원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 글로벌 TIPS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 글로벌혁신센터(KIC)를 중심으로 권역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스타트업 정보를 '스타트업 코리아(www.startupkorea.com)'에 통합 등재 하며, '창조경제 범부처 글로벌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국내 스타트업들이 해외 투자자들을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한다.
- 'K-startup 글로벌 협의회' 운영,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글로벌 사업팀을 활용한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등 정책 인프라도 강화한다.

## 2 판교창조경제밸리를 글로벌 창업과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

- '16.3월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 등을 통해 '창업→성장→글로벌 진출' 등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20년까지 첨단기업 1,600여개, 고급인력 10만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발전 기대
  - \* 공공 및 민간의 300개 신규 창업공간을 통해 향후 10년간 1,000개 이상 창업 기대

-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판교를 글로벌 창업과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14년부터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SW융합 기술개발, SW아카데미 등을 지원하는 판교 SW융합클러스터 사업('14~'19, 220억원)을 추진해 왔으며,
- 올해 3월에는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 내에 첨단 ICT 창업·혁신 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글로벌기업(SAP) 등이 집적된 스타트업 캠퍼스 (3.22일)를 개소하여 1밸리 조성을 완료하였다.
-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첨단ICT 기업 등이 밀집된 판교창조 경제밸리는 기업수, 매출액, 임직원수 등에서 양적·질적으로 급성장

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선도하는 **첨단기술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다.

\* '15년 기업 수는 1,121개로 '11년 대비 13배 증가, 총 매출액은 70조원으로 '14년 대비 29.8% 증가, 임직원 수는 72,820명으로 '14년 대비 25.14% 증가

- 특히, **스타트업 캠퍼스**에 **스타트업 46개사**, **액셀러레이터 및 투자사 5개사** 등이 입주를 완료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 K-ICT 본투글로벌센터와 K-ICT 창업멘토링센터 등을 통해 **4개월의 짧은 기간임에도 694개** 기업을 지원하여 **투자유치 297.6억원**(해외 14.1억원), **사업계약 65건**(해외 3건), **법인설립 20건**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 스타트업캠퍼스 4개월 주요성과 (단위: 건, 억원 / 7.15일 기준) >

구 분	지원실적		투자유치(M&A 포함)				사업계약연계		특허출원		법인설립	
	대상	건수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K-ICT본투글로벌센터	206	248	3	13.7	7	240	3	0	3	0	0	0
K-ICT 창업멘토링센터	488	2,423	1	0.4	13	43.5	-	62	-	20	-	20
<b>합계</b>	<b>694</b>	<b>2,671</b>	<b>4</b>	<b>14.1</b>	<b>20</b>	<b>283.5</b>	<b>3</b>	<b>62</b>	<b>3</b>	<b>20</b>	<b>0</b>	<b>20</b>

※ 판교 SW융합클러스터 실적('14~'15) : 신규고용 3,137명, 매출증가율 9.59%, 창업기업 지원 수 48개, 인력양성 977명

- 앞으로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18년까지 인근 도로공사 부지 등 신규부지를 조성하여 창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공공기관이 접적된 창조공간, 기업 발전단계별 맞춤형 공간, 글로벌 네트워크 등이 융합된 소통공간 등으로 구성된 **2밸리**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 3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3.17)'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연구소 설립 및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업·벤처기업 창출
- '16.10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 수립

- 미래부는 그동안 '90년대부터 쌓아온 세계 최고의 ICT 역량을 바탕으로 「SW중심사회 실현전략(14.7월)」, 「K-ICT 전략(15.3월)」 등을 통해 SW,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분야 등을 키워오면서 지능정보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져왔다.
- 또한, 지난 3월에는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3.17일)」을 수립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기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0월까지 민간 주도의 지능정보기술 연구소를 설립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 전문지식DB, 지능정보SW 등 지능정보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창업·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지능정보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 지능정보산업 전문인력(데이터분석 전문가, 인공지능SW 개발자 등)의 선제적 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 대학ICT연구센터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한편, 창조경제 생태계 속에서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탄생·성장하고 있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역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대표적으로 마인즈랩(14.1월 창업, 대표 유태준, 음성인식·대화처리 솔루션)은 ETRI의 기술이전을 통해 창업하였고, 이후 경영 위기 속에서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으로 네이버로부터 투자(10억원)를 유치하여 '15년 2.5억원이었던 매출이 '16년 상반기에만 1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 뷰노코리아(14.12월 창업, 대표 이예하, 의료영상판독 솔루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등을 통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고, 최근 신기술 규제개혁으로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가 합리화\*되어 제품 출시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며, 현재 식약처 인허가 준비 및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영상판독 보조 SW 출시를 준비 중이다.

\* 의료영상 내 이상부위 검출 표시를 통해 의료인의 진단결정을 보조하는 장치에 대한 분류 신설('16.7월)

- 미래부는 앞으로 지능정보산업의 발전과 함께 과거 세 차례의 산업 혁명에 비견될 정도의 큰 구조적 변화(제4차 산업혁명)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제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능정보사회 종합전략을 금년 10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3년여간 창출된 창조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① 창조경제 플랫폼 활성화

- 지자체와 전담기업이 지원하는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 완료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및 혁신의 거점으로 발전 중

\* 멘토링·시제품 제작·기업 보육·투자유치 등 활발히 진행, 금융·법률·특허 원스톱 지원

< 창조경제 혁신센터 주요성과 총괄('16.6월말 기준) >

창업기업 육성	중소기업 혁신지원	총계	투자유치	창업기업 매출신장	창업기업 신규채용
1,063개사	1,480개사	2,543개사	2,596억원	1,340억원	1,120명

- 전담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내 창업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의 구심점'으로 역할 강화

\* 지역 내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등과 역할을 분담·협력체계 구축

- 지역특화산업 육성(스마트 농업, 스마트 제조업 등)을 위해 정부부처 사업과 연계, 맞춤형 원스톱 지원 등을 통한 '지역 혁신거점'으로 육성 추진

- 창업·기업혁신 등 새로운 인력수요 창출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총량 확대를 위해 혁신센터 내에 고용존 구축('16.3)

②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창업 촉진

- (창업 지원제도 정비)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시장 신설·보완, 스톡옵션제도 개선,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 크라우드펀딩 제도화, 액셀러레이터 제도화 등 지속추진

- (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성장단계별, 분야별 정책펀드 확충\*,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창업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공급, 해외진출 지원 등 지속확대

\* (창업초기) 기술신용평가 자금 27.9조원,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5개 펀드, 4,510억원) / (성장단계) 미래 성장산업 자금 67.6조원, 벤처 펀드 1.8조원 조성 / (재도전) 재창업자금 확대(향후 5년간 최대 1.5조원)

-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기업의 다양한 기술애로를 단일창구(대표전화 1379)를 통해 연계·지원하는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본격 추진('15.7월~)
- \* 미래부가 직접 운영하고 출연(연), 과기 특성화대 등 40개 전문기관이 참여

- (공공기술 창업 활성화) 공공기술기반 창업기업\* 402개 설립('13~'16.6월말 기준),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16.8월말 완료 예정) 등
- \* 대학·출연(연)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특성화대 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 등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소기업 설립주체를 글로벌트러니어사업단, 지자체/공기업 출연(연) 등으로 확대 예정

### ③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신산업·신시장 창출

- (기술개발 및 상용화) 연간 약 1조원의 정부 R&D 사업을 통해 신기술 개발과 기업의 상용화를 지원
- \* (5G) 초고속 근접통신, 소형셀 기지국 SW, (스마트자동차) 4채널 스캐닝라이다 핵심기술, 절대위치 50cm 수준의 자율주행 정밀지도 생성 SW 시제품, (실감형 콘텐츠) 스크린 X, (융복합소재) 유리섬유 복합소재 기반 플라스틱 CCB 등
- (규제개선) 스마트카, IoT 등 신기술·신산업 저해 규제를 지속 발굴(약 100여건)·개선하여 기업의 참여를 촉진
- \* 비면허대역 주파수 출력기준 개선(10→200mw),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역 및 드론을 활용한 사업범위의 Negative 전환 등 신기술 규제 개선
- (실증·시범사업) 5G, 스마트자동차,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을 실증·시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국내최초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연('15.11, 코엑스), 지하철 8호선 5G 시범서비스 시연('16.1) 등
- (세제지원)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대상에 미래성장동력 관련 기술 10개를 추가(65개→75개)하여, 민간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 \* 대상 기술에 대해 R&D 투자액의 30%(중견·대기업 20%)를 세액공제
- (금융지원) 정책자금(80조원)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기업에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MoU 체결\* 등 추진
- \* 정책금융협의회(산은 등 9개 기관)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연, R&D 지원 기관 MOU 체결('16.6.27)

□ 개 요

- 창업·성장 등 기업 발전단계에 맞춘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등 소통·교류 환경을 구축하여 창조경제의 랜드마크 조성

□ 주요 추진내용

- (1밸리)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 내에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입주공간(200개 이상), ICBM 관련 창업·혁신 지원기관,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글로벌 기업(SAP) 등을 집적한 ‘스타트업캠퍼스’ 구축·운영(’16.3월)
  - ‘창업 → 성장 → 글로벌 진출’ 등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
    - \* (초기) 창업멘토링센터 → (성장) 민간 VC·액셀러레이터 → (글로벌) 경기혁신센터·Born2Global센터
  -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인재 채용, 해외 스타트업 국내유치 등 글로벌 창업 공간으로 육성 \* 스타트업 Outbound·Inbound 지원 등 15개 프로그램 운영
- (2밸리) 인근 도로공사 부지 및 그린벨트 해제 용지에 기존 공간의 부족으로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기능 및 시설 확충(’16.2월~’20년)
  - 미래부·국토부·중기청·문체부 등이 공간 구축 및 기능 구현을 위해 협업
  - ➔ 미래부는 ‘창조공간(기업지원허브)’에 혁신기술Zone(융합클러스터, 보안클러스터, 고성능컴퓨팅(HPC) 이노베이션허브), ICT-문화융합Zone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인큐베이팅을 위해 공공 지원기관이 집적된 창조공간(기업지원허브) 조성(①)</li> <li>◇ 기업 발전단계별 맞춤형 공간 조성(②③④)</li> <li>◇ 글로벌 네트워크, MICE·상업·문화가 융합된 소통교류공간 조성(⑤⑥)</li> </ul>		<table border="1"> <tr><td>①창조</td><td>(2만㎡)</td></tr> <tr><td>②성장</td><td>(4만㎡)</td></tr> <tr><td>③벤처</td><td>(6만㎡)</td></tr> <tr><td>④혁신기업</td><td>(8만㎡)</td></tr> <tr><td>⑤글로벌</td><td>(7만㎡)</td></tr> <tr><td>⑥소통교류</td><td>(3만㎡)</td></tr> <tr><td>* 공공시설</td><td>(13만㎡)</td></tr> </table>	①창조	(2만㎡)	②성장	(4만㎡)	③벤처	(6만㎡)	④혁신기업	(8만㎡)	⑤글로벌	(7만㎡)	⑥소통교류	(3만㎡)	* 공공시설	(13만㎡)
①창조	(2만㎡)															
②성장	(4만㎡)															
③벤처	(6만㎡)															
④혁신기업	(8만㎡)															
⑤글로벌	(7만㎡)															
⑥소통교류	(3만㎡)															
* 공공시설	(13만㎡)															
<p>신규 조성부지(창조+성장+글로벌·교류) 現 테크노밸리 (Business+해외 진출)</p>		<p>판교 창조경제밸리</p>														

□ 주요 성과

◆ (기대효과) '20년까지 첨단기업 1,600여개, 고급인력 10만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

\* 공공 및 민간의 300개 신규 창업공간을 통해 향후 10년간 1,000개 이상 창업 기대

< 판교 창조경제밸리 전체 성과 >

-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판교 소재 기업수, 매출액, 임직원수 등 양적·질적으로 급성장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선도하는 첨단기술 클러스터로 발전
  - '15년 기업 수는 1,121개로 '11년 대비 13배 증가, 총 매출액은 70조원\*으로 '14년 대비 29.8% 증가, 임직원 수는 72,820명으로 '14년 대비 25.14% 증가
- 특히, '15년 1년 신규고용이 8,940명에 달하고 여성인력 비중이 전체의 약 21.9%(약 1만6천여명), 연구인력 비중이 45.3%(약 3만3천여명)을 차지
  - ICT 기업 비중이 76.9%에 달하고, 중소기업이 90.9%를 차지

< 스타트업캠퍼스 주요 성과 >

- '16.3월 개소 이후 4개월여간 694개 기업을 지원하여 투자유치 297.6억원 (해외 14.1억원), 사업계약 65건(해외 3건), 법인설립 20건 등 성과 도출
  - 스타트업 46개사, 액셀러레이터·투자사 5개사 입주 후 본격 활동

< 스타트업캠퍼스 4개월 주요성과(단위: 건, 억원 / 7.15일 기준) >

구 분	지원실적		투자유치(M&A 포함)				사업계약연계		특허출원		법인설립	
	대상	건수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K-ICT본투 글로벌센터	206	248	3	13.7	7	240	3	0	3	0	0	0
K-ICT 창업 멘토링센터	488	2,423	1	0.4	13	43.5	-	62	-	20	-	20
합계	694	2,671	4	14.1	20	283.5	3	62	3	20	0	20

※ 판교 SW융합클러스터 사업('14~'19, 220억원) : 판교 내의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SW융합 기술개발 지원, SW아카데미 등을 지원

- 신규고용 3,137명, 매출증가율 9.59%, 창업기업 지원 수 48개, 인력양성 977명

□ 개 요

- 그동안 우리경제의 위기극복과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ICT 산업의 지속 발전,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산업 육성 정책 추진

□ 주요 추진내용

① 지능정보기술·SW 기반으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속에서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 발표(‘16.3), ICT경쟁력 강화를 위한 ‘K-ICT 전략 2016\*’ 발표(‘16.5)

\* K-ICT 전략(‘15.3) : ICT산업의 재도약을 목표로 ICT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수립, 지능정보기술을 반영한 ‘K-ICT전략 2016’으로 업그레이드(‘16.5)

- (지능정보산업 육성) 민간주도의 지능정보기술 연구소 설립(10월 예정),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8월 예정), 데이터 인프라 조성 등 지능정보산업 전략적 육성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미리 분석하여 향후 도래할 지능정보사회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16.10월 예정)

- (SW중심사회 실현) 초·중등학교 SW교육 강화, SW로 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등을 위한 ‘SW중심사회전략’ 수립·추진(‘14.7)

- SW교육 혁신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SW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R&D 지원\*\* 확대

\* 초중등 SW교육 필수화(‘18년), SW중심대학 확대(‘16년 14개 → ‘19년 목표 30개)

\*\* GCS(Global Creative SW : 유망 SW R&D · 해외진출 등 종합지원, ‘16년 298억원)

②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ICT 전략산업 집중 육성

- (사물인터넷) 실증단지 조성(스마트시티(부산), 헬스케어(대구)), 중소기업 신제품·서비스 개발·실증 지원(‘15년 62건) 등 활성화 기반 조성

- (클라우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15.3), ‘정보보호 대책(‘15.3)’ 등을 수립하여 공공부문 우선 도입 및 민간 이용·확산 기틀 마련

- (빅데이터) 선도형 시범사업 추진('15년 5건),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지원 ('15년 30개사) 등을 통해 전문기업 육성('15년 70건)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
- (디지털콘텐츠·스마트기기)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웨어러블 기기와 VR 등 디지털콘텐츠 기술을 국방·건축·안전·패션 등 각 분야에 적용

### ③ ICT융합 투자확대·규제개혁으로 신산업·신시장 지속 창출

- (융합서비스 확산) 핵심융합 분야 확대\*(6개→10대)하여 다양한 융합서비스 신기술 개발 및 실증·확산을 지원

\* (기존 6대) 의료·교육·교통·도시·에너지·관광 → (추가) 금융·홈·농축수산·제조

\*\* 공공서비스 혁신(11건), 사회현안 해결(8건) 등 총 105개 과제에서 성과

- (융합 규제개선) IoT·클라우드·빅데이터·O2O 등 ICT 융합 신산업 분야 53건 규제 개선 방안 확정\*('16.5월 규제개혁장관회의), 신속처리·임시허가 등을 통해 핵심규제를 지속개선함으로써 민간투자 확대 및 시장활성화 촉진

\* 900MHz대역 주파수 출력 규제 완화('16.5월)로 세계 최초 IoT 전국망 구축 ('16.6월) 및 우리 기업의 이란 원격 가스 검침 시범사업 진출 촉진

### ④ ICT 창업·벤처 육성 지원

- (글로벌 창업 지원)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기관(K-ICT Born2Global센터) 운영 및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16.3월 개소)에 스타트업(46개) 및 투자사(5개) 입주·지원을 본격화하여 창업, ICT 기술혁신, 글로벌 교류 활성화
- (벤처1세대 멘토링) 벤처1세대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창업기업 등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한 멘토링 지원 강화
- (재도전 지원 확대) 재도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프 운영, 재도전 기업인의 역량을 활용한 창업·사업화 지원 확대('16년 80개사)
- (ICT 투자 촉진) Korea IT Fund(KIF, '23년까지 약 1.7조원 조성) 등을 활용하여 지능정보 등 ICT 10대 전략산업에 선도적 투자 추진

< ICT 유망 스타트업 K-Global 300 기업 집중 지원('15~) >

· ICT·융합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선별, 성장단계별·수요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여 성과 창출 가시화

□ 주요 성과

- ◆ ICT 수출액 : 사상 최초로 세계 3위 달성('15년)  
\* ('14년) 중국, 미국, 독일, 한국 → ('15년) 중국, 미국, 한국, 독일
- ◆ ICT 발전지수 : 세계 1위 재탈환('15년, 국제전기통신연합)  
\* ('14년) 2위 (1위, 덴마크) → ('15년) 1위 (2위, 덴마크)

< '15년 ICT 창업·벤처 지원정책 성과 >



- (ICT 전략산업 육성) 융합클러스터와 실증단지 조성, 관련법률 제정, R&D 및 사업화, 전문인력·기업 육성 등을 통해 新산업 시장 창출을 견인, 주요 전략산업의 수출, 기업 수 및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



- (융합 확대) 창조비타민\* 등 대규모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융합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총 139개 과제를 발굴하여 공공서비스 혁신(15건), 사회현안해결(11건), 사업화(29건), 업무효율(20건) 등 성과창출 중

- (체질 개선) '18년 초중등 SW교육 필수화 확정, SW중심대학 등 SW중심사회로의 이행 토대 마련\*, ICT 창업·벤처 지원정책을 통해 수혜기업의 매출, 고용, 투자유치 증가 지원

\* SW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증가로 우수인재 양성 토대 마련, SW관련학과 학생 수 증가·전공 선호도 향상('14년 5.7만명 → '15년 5.9만명)

## 국제문화교류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및 협업 연결망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7월 26일(화)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국제교류 담당 과장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국제문화교류 지역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워크숍은 최근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 차원의 국제문화교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각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지자체 국제문화교류 추진 현황 발표, 애로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이번 워크숍은 『먼나라 이웃나라』의 저자이자 전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이원복 덕성여대 총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문체부 국제문화교류정책의 국제문화교류 정책 방향과 협조 당부, 지자체별 국제문화교류 추진 현황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 가운데 사업 시기와 지역 등을 고려했을 때 문체부나 다른 지자체와의 연계로 동반 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참석자들이 함께 고민해보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문화교류 지역네트워크 워크숍’을 매년 정례화해 문체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 연결망(네트워크)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워크숍은 국제문화교류 분야에서 문체부와 지자체 간 연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제문화교류 증진의 기반 조성’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제문화교류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계획(안)

행사 개요

- 행사명 : 국제문화교류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 일 시 : 2016. 7. 26.(화), 11:00~18:00
-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
  
- 참석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국제문화과장
  - 17개 시도 문화예술 및 국제교류 담당 과장, 실무자
  
- 주요내용
  - 국제문화교류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공유
  - 지자체 국제문화교류 추진현황 및 의견 수렴 등

워크숍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말씀</li> <li>▪ 참석자 소개</li> </ul>	
11:10~12:0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사 특강</li> </ul>	
12:00~13:30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 찬</li> </ul>	세종컨벤션센터
13:30~13:4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문화교류 정책방향 및 협조</li> </ul>	국제문화과장 주관
13:45~14:35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국제문화교류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I</li> </ul>	참석자 (각 5분)
14:35~15:0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피 브레이크</li> </ul>	
15:00~15:5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국제문화교류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II</li> </ul>	참석자 (각 5분)
15:50~15:5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무리 말씀</li> </ul>	
16:00~18:00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탐방</li> </ul>	세종특별자치시 협조

## ‘2018 강원특선음식 30선’으로 올림픽관광객 입맛 사로잡는다

- 7. 20. 케이 스타일 허브 한식체험관에서 시연·시식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7월 20일(수) 케이 스타일 허브(K-Style Hub) 한식체험관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함께 강원지역의 전통 식재료와 전통음식을 활용하여 개발한 ‘2018 강원특선음식 30선’(이하 특선음식 30선)의 시연·시식회를 개최한다.

특선음식 30선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평창과 강릉, 정선지역의 독특하고 고유한 식재료 및 전통음식을 소재로 국내외 관광객들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개발·보급하고자 국내외 역량 있는 요리사들이 참여하여 지난해 6월부터 1년여의 노력 끝에 개발을 완료하게 되었다.

특선음식 30선은 평창과 강릉, 정선 3개 지역의 10선들로 이루어져 있다. ‘평창 10선(한우불고기, 메밀파스타, 메밀더덕롤까스, 황태칼국수, 송어덮밥, 송어만두, 비빔밥샐러드, 사과파이, 굴리미, 초코감자)’은 영월 출신의 요리사 에드워드 권이 메밀과 황태, 송어 등 평창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 융합(퓨전) 형태로 개발했다. ‘강릉 10선(삼계옹심이, 짜북옹심이, 크림감자옹심이, 초당두부밥상, 두부삼합, 두부샐러드, 바다해물밥상, 삼선비빔밥, 해물뚝배기, 마파두부탕수)’은 가톨릭 관동대 산학협력단의 김호석 교수와 최현석 요리사가 감자옹심이, 초당두부, 해산물 등 강릉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 전통 형태로 개발했다. ‘정선 10선(곤드레비빔밥, 곤드레버섯불고기, 더덕보쌈, 콧등치기 국수, 감자붕생이밥, 황기닭백숙, 황기족발, 느른국, 채만두, 옥수수푸딩)’은 영화 <식객>의 요리감독을 맡았던 김수진 요리사가 곤드레, 황기, 옥수수 등 정선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여 전통 형태로 개발했다.

이날 시연·시식회에서는 개발에 참여한 에드워드 권과 김수진 요리사, 김호석 교수가 직접 비빔밥샐러드(평창)와 더덕보쌈(정선), 삼선비빔밥(강릉)의 조리 방법을 시연한다. 시연 후에는 평창 메밀파스타와 비빔밥샐러드,

송어만두, 강릉 삼계옹심이, 두부샐러드, 삼선비빔밥, 정선 곤드레비빔밥, 더덕보쌈, 옥수수푸딩 등 3개 지역별로 3선씩 총 9종의 음식을 맛보는 시식 행사가 진행된다.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시연·시식회 축사를 통해 “강원지역 고유의 식재료를 토대로 개발된 ‘특선음식 30선’을 시판하기를 원하는 음식업체에 대한 특전(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많은 올림픽관광객들이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창군과 강릉시, 정선군에서는 관광객들이 ‘특선음식 30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음식업체 보급 및 판매를 위한 재료 손질, 조리법 등 레시피 교육을 실시(총 23회, 428명 참여)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르면 9월부터는 지역 내 음식점에서도 특선음식이 판매될 계획이다.

앞으로, 문체부는 지역음식점을 대상으로 ‘특선음식 30선’에 대한 현장 교육과 사후 관리 등을 통해 특선음식이 지역의 대표음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관령눈꽃축제와 평창송어축제, 강릉겨울문화페스티벌, 정선고드름축제와 같은 강원 지역 겨울축제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소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림픽조직위와 협의하여 선수촌 식단에도 특선음식이 오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붙임 1. ‘2018 강원특선음식’ 시연·시식회 행사 계획  
2. ‘2018 강원특선음식 30선’ 사진 자료  
3. ‘2018 강원특선음식 30선’ 개발 개요

## 《 불임 1 》

# 「2018 강원특선음식」 시연·시식회 행사계획

### □ 행사개요

- 일 시 : 2016. 7. 20.(수) 11:30 ~ 13:00(90분)
- 장 소 : 서울 K-Style Hub 한식체험관(4F) (관광공사 서울센터)
- 참석자
  - 내·외신기자 50여명
  -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맹성규 강원도부지사, 최명희 강릉시장, 심재국 평창군수, 전정환 정선군수, 윤숙자 한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 내 용
  - 1부 시연(30분) : 비빔밥샐러드(평창) → 더덕보쌈(정선) → 삼계옹심이(강릉)
  - 2부 시식(60분) : (평창) 비빔밥샐러드, 송어만두, 메밀파스타  
(강릉) 삼계옹심이, 두부샐러드, 삼선비빔밥  
(정선) 더덕보쌈, 곤드레비빔밥, 옥수수푸딩

### □ 행사 세부계획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1:30 ~ 11:35	5'	개회, 주요 내빈소개	사회자
11:35 ~ 11:40	5'	인사말씀	2차관, 부지사
11:40 ~ 11:50	10'	평창군 시연	에드워드권 셰프
11:50 ~ 12:00	10'	정선군 시연	김수진 원장
12:00 ~ 12:10	10'	강릉시 시연	김호석 교수
12:00 ~ 12:20	10'	질의응답	사회자
12:20 ~ 13:00	40'	시식회	오 찬

※ 시식형식 : 총 9종을 한상 차림형식으로 세트 제공

## □ 시연자 이력사항

### 평창 메뉴개발자



- 에드워드 권(現이케이푸드 대표이사, 1971년생)
  - 영동전문대 호텔조리학과 졸
  -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호텔조리학부학장(現)
  - 버즈 알 아랍 호텔 수석 총괄 조리장 역임

### 강릉 메뉴개발자



- 김 호 석(現가톨릭관동대 호텔조리 외식경영학과 전임교수, 1973년생)
  - 세종대학교대학원 조리외식경영학과박사 과정수료(외식경영학박사)
  - (주)신안관광 리베라호텔 조리장 역임
  - (주)부첼라 조리팀장 역임

### 정선 메뉴개발자



- 김 수 진(現푸드앤컬처아카데미 원장, 1955년생)
  - 한류음식문화연구원 원장(現)
  - 2016년 뉴욕 타임스퀘어 한식행사 진행
  - 국내최초 요리감독(왕의남자, 식객, 미인도, 쌍화점 등)

# 《 불임 2 》 「2018 강원특선음식 30선」 사진자료

## 평창 10선

	<p>평창을 상징하는 한우 선대들 삶의 건강한 지혜가 담긴 평창 아라리! 평창의 유구한 숨결이 있는 둘의 공통점을 하나의 이미지로 담은 메뉴</p>		<p>고추장 소스를 발라 껍질은 바삭하게, 살은 촉촉하게 구운 송어와 각종 채소를 넣은 볶음밥이 조화를 이루는 메뉴</p>
<p><b>【한우불고기】</b></p>		<p><b>【송어덮밥】</b></p>	
	<p>송어의 맛과 향을 살리고 부드러운 토마토와 크림소스에 곁들여 만두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낸 메뉴</p>		<p>계란을 입혀 튀긴 황태채가 쫄깃한 감자면과 시원한 조개육수를 만나 놀랍도록 부드러운 식감을 내는 메뉴</p>
<p><b>【송어만두】</b></p>		<p><b>【황태칼국수】</b></p>	
	<p>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연상시키는 강원도 평창의 봉평, 메밀의 꽃말인 “연인”을 연상시켜 문화사랑의 아찌를 함께 담은 메뉴</p>		<p>강원도의 더덕을 사용한 야채 돈까스로 얇게 썬 등심과 더덕, 야채로 롤을 만든 후 메밀가루를 입혀 튀긴 메뉴</p>
<p><b>【메밀파스타】</b></p>		<p><b>【메밀더덕 롤까스】</b></p>	
	<p>온갖 꽃이 핀 것 같다는 뜻의 “화반(花飯)”으로 불렸던 비빔밥의 이미지와 바삭한 튀일을 얹은 샐러드의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이미지를 함께 담은 메뉴</p>		<p>강원도의 대표 특산물 감자를 이용한 주전부리 메뉴로 전채나 후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뉴</p>
<p><b>【비빔밥샐러드】</b></p>		<p><b>【굴리미】</b></p>	
	<p>강원도 평창의 특산물 고랭지 사과에 유자청과 견과류를 넣은 파이로 테이크아웃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메뉴</p>		<p>강원도 감자를 형상화한 화분 디저트의 시각적인 즐거움과 달콤한 초콜릿으로 강원도를 나타낸 치즈무스</p>
<p><b>【사과파이】</b></p>		<p><b>【초코감자】</b></p>	

## 강릉 10선



엄나무, 수삼, 황기 한약재를 우린 물에 닭을 넣고 쫄득한 옹심이를 띄워 끓여낸 음식

**【삼계옹심이】**



맑게 끓여낸 짜복 (비단조개) 국물에 건고추를 넣어 칼칼함과 시원함을 가미한 옹심이 음식

**【짜복옹심이】**



부드럽게 씹히는 옹심이에 크림소스를 얹고 볶아서 기름 뺀 베이컨과 토마토를 곁들인 메뉴

**【크림감자옹심이】**



강릉의 초당 두부를 이용해 녹말가루 및 특제 소스를 얹어 만든 두부 탕수

**【마파두부탕수】**



동해 바닷물과 콩을 이용한 전통 방식으로 만든 초당 두부 밥상

**【초당두부밥상】**



초당에서 만든 모두부와 돼지고기 수육, 묵은지를 얹어 만든 두부김치

**【두부삼합】**



잘 구워진 두부, 신선한 어린 채소, 제철 과일을 한데 섞고 두부와 홍시, 연근칩으로 맛을 낸 두부 드레싱 샐러드

**【두부샐러드】**



해삼, 전복 등 해산물을 향신채에 볶고 구운 차돌박이와 볶은 채소에 홍시를 더해 고추장과 향신장소스를 버벼 만든 비빔밥

**【삼선비빔밥】**



갓지은 돌솥밥에 정갈하게 준비된 향토음식 해물 강된장과 반찬을 곁들여 진한바다향을 느끼게 만든 메뉴

**【바다해물밥상】**



강릉의 각종 전복, 새우 조개 등 해물을 이용해 뚝배기에 담아 끓여낸 메뉴

**【해물뚝배기】**

## 정선 10선

	<p>곤드레를 들기름에 볶고 갓 지은 밥에 여러 나물들과 간장 양념이나 약고추장을 넣은 비빔밥</p>		<p>곤드레 특유의 향이 감칠맛 나는 옥수와 불고기의 부드러운 맛과 잘 어울려 식감을 돋우는 메뉴</p>
<p><b>【곤드레 비빔밥】</b></p>	<p><b>【곤드레 버섯불고기】</b></p>		
	<p>산의 고기라 불리는 정선 더덕에 삶은 돼지고기를 함께 곁들인 메뉴</p>		<p>감자 전분이 포슬 포슬한 상태(강원도에서 '붕실거린다'고 표현)가 되도록 삶은 감자에 완두콩을 곁들인 메뉴</p>
<p><b>【더덕보쌈】</b></p>	<p><b>【감자 붕생이밥】</b></p>		
	<p>국수면을 후루룩 빨아들일 때 끄트머리가 탄력 있게 흔들려 콧등을 치고 입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이름 붙은 메밀을 주재료로 만든 국수</p>		<p>갓김치 등 채소로 속을 채워 채만두라는 이름이 붙은 만두</p>
<p><b>【콧등치기 국수】</b></p>	<p><b>【채만두】</b></p>		
	<p>삶은 메밀국수를 찬물에 헹구지 않고 국수 끓인 물을 그대로 옥수로 활용, 메밀의 향과 맛이 느릿하게 배어든 음식</p>		<p>보양의 으뜸이라 불리는 황기로 끓여낸 닭백숙</p>
<p><b>【느른국】</b></p>	<p><b>【황기 닭백숙】</b></p>		
	<p>따뜻한 성질을 지닌 황기와 찬 성질의 돼지고기가 궁합을 이루는 메뉴</p>		<p>당도가 높고 섬유질이 풍부한 옥수수로 만든 푸딩</p>
<p><b>【황기족발】</b></p>	<p><b>【옥수수 푸딩】</b></p>		

## 《 붙임 3 》

# 『2018 강원특선음식 30선』 개발 개요

### □ 개발 현황

- 올림픽개최 지역의 로컬푸드를 활용, 평창올림픽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 취향에 맞는 다양한 올림픽메뉴 개발 보급
  - (평창) 에드워드 권 셰프 평창 10선 개발 : '15년 9~ 11월
    - 1차 중간 메뉴개발(5종) 시연회('15. 10. 15./평창)
    - 2차 최종 메뉴개발(10종) 시연회('15. 11. 10./서울 안스페이스)
  - (강릉) 가톨릭관동대 산학협력단(김호석 교수) 12종 개발 : '15년 9 ~ 11월  
최현석 셰프 3종개발 : '16년 1 ~ 2월
    - 가톨릭관동대 산학협력단 최종 개발완료(12종) 시연회('15. 11. 27./강릉)
    - 최현석 셰프 메뉴개발(3종) 시연·시식회('15. 2. 4. ~ 2. 6./겨울문화페스티벌)
    -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강릉10선으로 확정('15. 6. 15.)
  - (정선) 김수진 원장 정선 10선 개발 : '16년 5~ 6월

### □ 보급 추진현황

- 지역축제연계 음식상품화 홍보

일 자	구 분	내 용
'15. 12.18~ '16.1.31	송어축제연계 푸드페스티벌 (평창)	행사장 내 특선메뉴 시식, 홍보, 판매(송어만두, 송어덮밥 2종)/ 에드워드 권 셰프 초청 메뉴 시연( '16.1.3)
'16. 1.27~2.7	대관령 눈꽃축제연계 특선 메뉴 홍보부스 운영(평창)	올림픽 특선메뉴 음식 홍보관 운영, 메뉴 홍보(황태갈국수, 사과피02종)/ 에드워드 권 셰프 초청 메뉴 시연( '16.1.31)
'16. 2.4~2.6	겨울문화페스티벌연계 시연회 개최(강릉)	행사장 내 특선메뉴 시식, 홍보, 판매(두부삼합, 두부 샐러드, 삼선비빔밥 3종)/ 최현석 셰프 강릉음식홍보대사 임명식 및 개발음식 시연 요리콘서트운영( '16.2.6)

- 일반업소 보급 교육추진 사항

(평창) · 외식업지구 대상 시연회 : '15. 11. 12.(EK푸드, 이동원셰프)  
 · 1차 특선메뉴 레시피 교육 추진 : 4. 18./ 4. 20./ 4.27(3회)  
 · 2차 특선메뉴 레시피 교육 추진 : 7. 5./ 7. 6./ 7. 7./ 7. 8./(4회)

\* 레시피 교육실적(총7회, 연94개 업소 참여)

(강릉) · 강릉지역 업소대상 시연회 : '16. 3. 7. ~ 6. 30. ※ (정선) '16년도 하반기 교육추진

\* 레시피 교육(매주 월요일14:00, 농업기술센터 조리실, 강사 3인), 실적(총 16회 연334개 업소 참여)

⇒ 시판 업소 인센티브 제공(입식테이블, 화장실 등 시설개선 신청 시 우선 지원)

## 농촌지역 안전환경 조성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찰청간 업무협약 체결

### 《 주 요 내 용 》

#### ◆ 행사개요

- 일시 및 장소 : '16.7.25일(월),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 주요 참석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경찰청장, 농협 관계자 등 약 15명
- 협약내용 : 농촌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5개 분야
  - ①농기계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②농촌지역 범죄예방 환경조성, ③농림축산물 방역 및 방제 활동 협력, ④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⑤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 협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안전한 농촌,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7.25일(월)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그간 농식품부와 경찰청은 농촌지역 교통안전, 농축산물 절도 등 범죄예방, 구제역·AI·소나무재선충병 등 농림축산물 질병에 대한 방역·방제 활동 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그 결과, 농축산물 절도 검거율이 '12년 32.9%에서 '15년 51.7%로 약 20%p 상승하였고,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12년 83명에서 '15년 65명으로 21.7% 감소하는 등 성과도 거두었다.

□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이루어졌던 농식품부와 경찰청간의 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는 농촌지역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5개 분야이다.

- 우선, 농기계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양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 농식품부는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청은 ‘빛반사 바람막이’ 등 교통 안전용품을 지속 보급하기로 했다.
  - 또한, 양기관은 농기계 음주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 둘째, 농축산물 절도 등 농촌지역 범죄 예방에 협력하기로 했다.
  - 농식품부는 CCTV 등 방범장비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범죄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 또한, 경찰청은 수확기 전·후 농산물 절도 예방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 셋째,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소나무재선충병 등 농축산물 질병에 대한 방역·방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경찰청은 경찰인력의 방역활동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기로 하였고, 농식품부는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경찰인력에게 충분한 안전장비와 휴게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넷째, 양기관은 안전한 농식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양기관은 부정유통 물품 및 업체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농식품부는 경찰인력의 원산지 식별법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방지를 위해 양 기관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촌을 더욱 안전하고 살기좋은 곳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양기관간 협업이 정부기관 간 협업의 모범사례가 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붙임 : 1. 농림축산식품부-경찰청간 MOU 행사자료

**붙임1**

**농림축산식품부-경찰청간 MOU 행사자료**

7. 25.(월) 15:00

용인 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식품부-경찰청 업무협약식

# 행 사 자 료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경찰청 업무협약식 계획

## □ 행사 개요

- 일시 · 장소 : 7. 25(월) 15:00 ~ 15:45 /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 참석 대상(7명)
  - 농식품부 : 장관님, 농촌정책국장, 농촌복지여성과장
  - 경찰청 : 청장, 교통국장, 교통안전과장, 수사1과장
- 협약 주요내용 :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농촌지역 범죄 예방 환경조성, 농림축산물 방역·방제 활동 협력,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관련 협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

## □ 행사 시간표

구분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환담	15:00 ~ 15:09	9'	장관-청장 환담 (접견실)	
	15:09 ~ 15:10	1'	이동 (접견실 → 회의실)	
협약 체결	15:10 ~ 15:15	5'	개식 및 참석자 소개(5') - 참석자 소개(2') - 추진경과 보고(3')	· 농촌복지여성과 허동웅 사무관
	15:15 ~ 15:27	12'	업무협약 체결 - 인사말씀(각 5') - 협약서 서명 및 교환(2')	· 장관 · 청장 순
	15:27 ~ 15:30	3'	이동 (회의실 → 농기계임대사업소)	
기념 행사	15:30 ~ 15:35	5'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설명	· 용인농업기술센터장
	15:35 ~ 15:40	5'	기념행사 - 장관(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 청장(야광봉, 야광조끼 전달)	
	15:40 ~ 15:45	5'	기념 촬영(5')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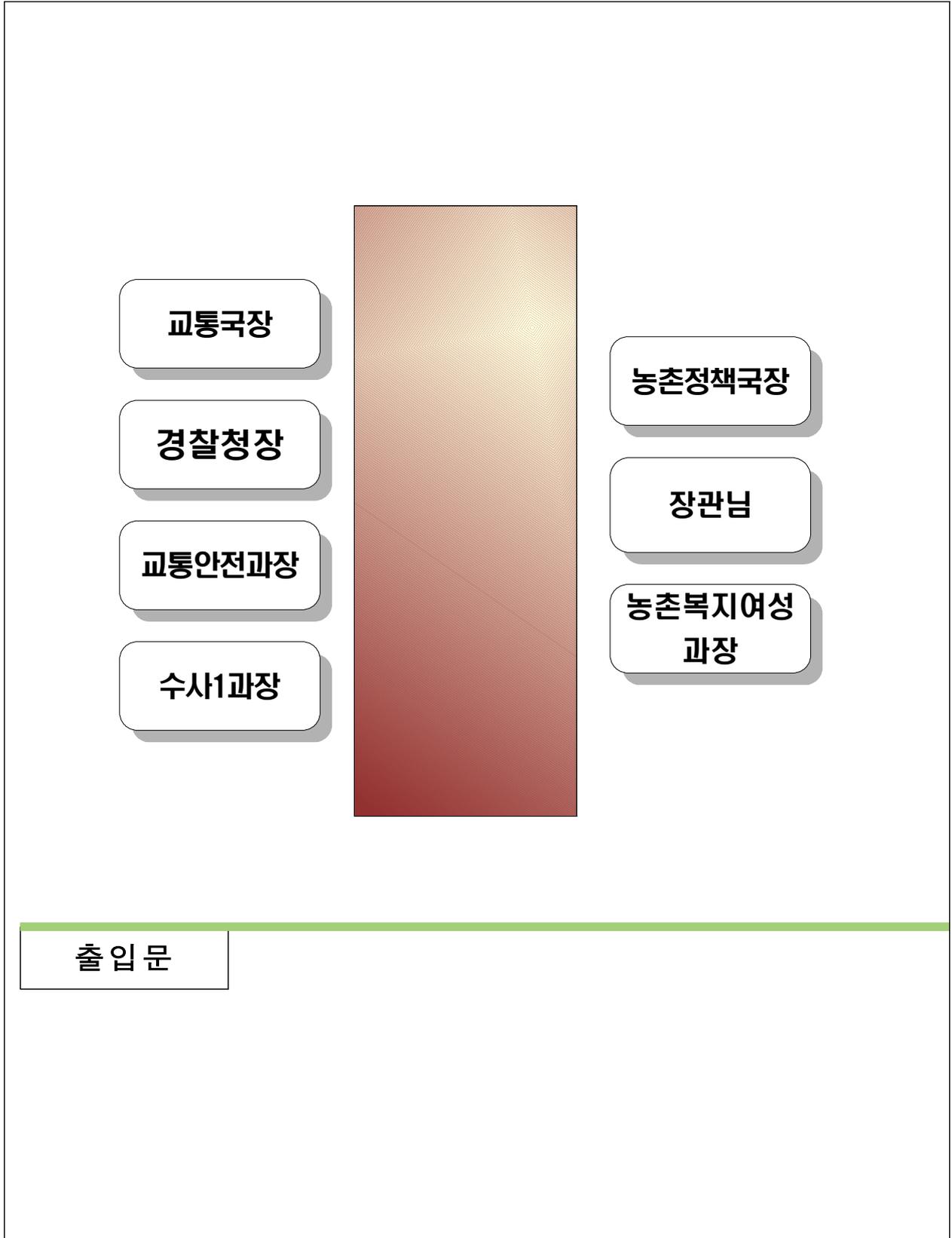
**경찰청 참석자 명단**

사 진	소속 직책	성 명 (나이)	주요경력
	경찰청장	강신명 (64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 합천</li> <li>- 대구 청구고 / 경찰대(2기) / 연세대 법무대학원(석사)</li> <li>- BH 사회안전비서관</li> <li>- 경북청장, 서울청장</li> <li>- 경찰청장(제19대)</li> </ul>
	교통국장	임호선 (64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진천</li> <li>- 청주 충북고 / 경찰대(2기)</li> <l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li> <li>- 서울청 교통지도부장</li> <li>- 경찰청 새경찰추진단장</li> </ul>
	교통안전과장	윤소식 (65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li> <li>- 대전 동산고 / 경찰대(5기) / 고려대 정책대학원(석사)</li> <li>- 대전청 서부경찰서장</li> <li>- 서울청 중부경찰서장</li> <li>- 서울청 교통안전과장</li> </ul>
	수사1과장	이명교 (65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서산</li> <li>- 충남서령고 / 성균관대</li> <li>- 사법고시 38회</li> <li>- 충남청 당진서장</li> <li>- 국회 경비대장</li> <li>- 서울청 혜화서장</li> </ul>

**참고 2**

**좌석 배치표**

< 접견실 >



< 협약식 장소 >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찰청(이하 “양기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하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 제1조

#### 통칙

1. 이 업무협약(이하 “협약”)은 양기관의 상호 협력으로 농기계 교통 사고 예방, 농촌형 범죄 예방 및 단속, 농림축산물 질병 대응,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및 부정유통 근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약의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양기관은 기관별 인력·예산·업무를 존중하고 상호 가용자원 내에서 협력한다.

### 제2조

#### 협력범위

협약에 따른 양기관의 협력범위는 다음의 중점 분야를 포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양기관간 협업 가능 제반 시책을 포함한다.

1. 양기관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농기계 보험가입 지원, 음주운전·안전사고 관련 홍보 및 캠페인, 안전용품 배포 등 농기계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한다.
2. 양기관은 농촌형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방법용 CCTV 설치 확대, 농산물 절도 방지를 위한 특별 단속기간 지정·운영 등에 최대한 협업한다

3. 양기관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소나무재선충병 등 농림축산물의 질병 방제를 위해 불법 운반차량 단속, 통제초소 운영, 질병 발생 농가에 대한 단속 및 계도 등에 적극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4. 양기관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농축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과 부정유통에 관한 정보 공유에 협력하고, 각종 농식품 인증제의 허위·부정 표시 단속에 적극 협력한다.
5. 양기관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 제3조 협력 방식

1. 협약 사항 이행 및 양기관의 지속적 협업을 위해 필요시 「안전농촌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 가. 협의회의 대표는 양기관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 나. 협의회의 안건은 양기관이 사전에 협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한다.
  - 다. 협의회는 관련 유관기관들이 우호적 관계가 되도록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2. 양기관은 소관 업무 및 소속 공공기관 업무에 대해 상대방의 협조 요청시 적극 협력한다.
3. 양기관은 협력분야 관련 전시회, 세미나, 기타 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4. 기타 양기관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제4조 협약

1. 양기관은 협약내용을 상호 협력과 신뢰의 정신으로 준수한다.
2. 협약에 명시된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5조  
비밀유지

협약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효력

1.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협약은 한기관이 상대 기관에게 이 협약의 종료 의사를 통지한 후 9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3. 협약은 양기관의 합의된 서면교환에 의해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4. 협약은 2부를 작성하여 양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7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경찰청을 대표하여  
경찰청장 강신명

## 참고 4

## 협업 분야별 현황 및 향후 협업과제

협업분야	현황	향후 협업과제
<p>1. 농촌 범죄예방</p>	<p>&lt; 추진여건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축산물 절도 증가 추세( '12년, 1,043건 → '13년, 1,050 → '14년, 1,053)</li> </ul> <p>&lt; 추진현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부터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지자체에 CCTV 등 설치 본격 지원</li> <li>○ 경찰청은 농산물 수확기에 저장창고·야적장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li> </ul> <p>* '14.12월 경찰청-농협간 '농촌 안전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 '15년부터 경찰청이 우범지역 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면 지자체와 비용을 분담하여 CCTV 등을 설치(현재, 7개 시·군 603대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지자체에 CCTV 등 방범시설 확충 유도</li> <li>② 경찰청은 수확기 전·후 농산물 절도 예방대책 마련, 주민대상 범죄예방 교육 강화</li> </ul>
<p>2. 방역 및 방제</p>	<p>&lt; 추진여건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제역) '14년 이후, 41개 시·군에서 209건 발생(20만마리 살처분)</li> <li>○ (AD) '14년 이후, 59개 시·군에서 393건 발생(1,938만마리 살처분)</li> <li>○ (소나무재선충) '12년부터 피해건수 확대( '12년, 49건 → '13년, 48 → '14년, 218 → '15년, 174)</li> </ul> <p>&lt; 추진현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제역AI 발생시, 지자체와 경찰은 이동통제소 운영, 축산차량 GPS 장착 여부 단속 등에 협업</li> </ul> <p>* '14.1~'15.3월까지 구제역 및 AI 방역현장에 경찰인력 약 10만 3천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나무 재선충 발생시,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산림청과 경찰청간 협업 추진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농식품부는 방역활동 지원 중인 경찰 인력에게 안전장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 예산(긴급방역비) 지원</li> <li>② 경찰청은 구제역·AI 등 농림축산물 질병 발생시 체계적 경찰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li> </ul>

<p>3. 원산지 표시단속</p>	<p>&lt; 추진여건 &gt; ○ 원산지 표시 위반 지속 발생( '13년, 4,443건 → ' 14년, 4,290 → '15년, 4,331)</p> <p>&lt; 추진현황 &gt; ○ 농관원과 경찰이 각각 상시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 다만 추석·설 등 유통 성수기에 합동단속 진행( '16.1 ~ 6월, 54회)</p>	<p>① 농식품부는 경찰청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등에 대한 감정 의뢰시 신속 통보 협조, 농관원을 통해 원산지 식별법에 대한 교육인력을 경찰청에 파견</p> <p>② 경찰청은 부정유통 물품 및 업체 정보를 농식품부와 공유</p>
<p>4.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p>	<p>&lt; 추진여건 &gt; ○ 농기계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 추세 * 농기계 교통사고(사망자) 현황 : ('13) 463건(99명) → ('14) 428(75) → ('15) 500(65)</p> <p>&lt; 추진현황 &gt; ○ 농식품부는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 중 * 등화장치 부착 지원 실적 : ('15) 25천대 → ('16) 30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현황 : ('13) 40천건 → ('15) 52</p> <p>○ 경찰청은 마을주민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 야광지팡이 및 야광조끼 배부, 갓길없는 커브구간 등 위험지역 운행 농기계를 안전지역까지 에스코트</p>	<p>① 농식품부는 등화장치 부착 지원 확대 ( '15 : 25천대 → ' 16 : 30)</p> <p>② 경찰청은 야간 사고 예방을 위해 '빛반사 바람막이' 보급(' 16년 2만벌)</p> <p>③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5.4)을 계기로, 5월 한달간 양기관이 협력하여 농기계 안전운행 요령 등 집중 홍보</p>
<p>5. 야생동물 피해방지</p>	<p>&lt; 추진여건 &gt;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속 발생( '12년, 121억원 → '13년, 127 → ' 14년, 109)</p> <p>&lt; 추진현황 &gt; ○ 경찰청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완화를 위해 내부 지침 개정을 통해 총기규제완화( '15.7) * 총기 출고시간 연장(07:00~24:00 → 주간 : 05:00~21:00, 야간 : 17:00~다음날 09:00), 자력구제시 총기입출금 조건 완화(참여인 동행 → 단독 입·출고), 유해조수 포획단 기준완화(3인이상 → 2인 이상), 총기보관기간 연장( 2주 단위 갱신 → 2개월 단위로 갱신) 등</p>	<p>○ 양기관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방지 방안 지속 협의</p>

**참고 5**

**삶의 질 계획으로 추진 중인 안전분야 주요 사업**

사업명	'16 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담당부처 (담당부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64,014	· 농업인안전보험 ·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국고 50%, 자부담 50%) · 등화장치부착지원(국고 40%, 지자체 60%)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지능형 CCTV 및 CCTV 통합관제 센터 확대 구축	25,598	지자체 각 부서별로 설치한 CCTV 통합관제 센터 구축 지원 및 지능형 관제 서비스 도입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지원과
생활안전지도 구축 및 공개	941	각종 위험정보(범죄, 재난 등)를 GIS기반의 생활안전지도로 제작하여 인터넷, 모바일 창구를 통해 제공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농어촌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	범죄예방진단 및 방범 인프라 구축, 맞춤형 순찰활동, 범죄예방 홍보	경찰청 생활안전과
농어촌 폭력 예방교육 인프라 강화	10,834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청소년성문화 센터 운영, 농촌 소외지역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75,000	농어촌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 구간 개선 및 시설물 보강지원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
교통안전활동	-	농어촌 지역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등 지속 점검·정비	경찰청 교통운영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4,000	어선안전장치 3종 지원(구명조끼, 자동 소화장치, 초단파대 무선전화)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농기계 교통안전 사고예방	-	농기계 안전반사판 부착 및 농업인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 농촌진흥청-국토교통부-한국3M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업무협약 체결 (13.11월)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식품기업의 신성장 동력”

- 7월, 이달의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사례, CJ 그룹 -

### 《이달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주요내용》

◇ “CJ그룹” 농식품부와 상생협약(MOU) 체결 후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최우수” 획득

\* 농식품부와 상생협약(MOU, '13.9) 체결 후 그룹 계열사를 통한 계약재배 및 지역 상생협력 확산, 종자개발 등 국산농산물 구매확대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과 기업의 다양한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농식품 생산 및 소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매달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 7월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된 ‘CJ그룹’은 2013년도 농식품부에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일환으로 추진한 ‘행복사다리’ 1호 기업으로 국산 농축산물 사용 확대, 종자 개발 및 재배 기술 이전 등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 CJ그룹 식품계열사들은 국내산 농산물 구매 규모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국산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CJ프레시웨이’는 지난해 전국 8개 지역, 135개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연간 3,630톤에 달하는 농산물을 구매했다. 올해 손잡은 농가는 786개로 전년대비 482% 이상 늘어났으며, 취급품목도 전년 4개에

서 8개로 확대해 수매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 또한, CJ프레시웨이는 자사의 수요에 맞는 종자를 농가에 지원하고 사전 협의된 규격 및 단가에 맞춰 전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중간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있다. 산지 농업인과 계약 재배를 체결·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 지난달에는 산청딸기 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품목 협의회를 구축하였다. 산청지역 27개 농가가 연간 400여톤에 달하는 딸기를 CJ프레시웨이에 공급할 예정이다.

□ ‘CJ 제일제당’은 지난해 12월 양돈농협 등 국내 축산물 유통업체와 원료육 구매·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올 한 해 동안 모두 3,000톤(월 250톤) 규모의 한돈(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구매하기로 했다.

□ CJ는 일반 농가를 통한 원료구매뿐 아니라 우수 농산물 종자 개발 및 상품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3월 종자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주)CJ브리딩’을 출범시킨 것도 그 일환이다.

○ ‘CJ브리딩’은 CJ제일제당이 제주콩농가, (주)바이오브리딩 등 농업계와 공동출자를 통해 만든 회사로 쌀과 콩, 고추, 배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우수 농산물 종자를 개발하고 이를 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재배를 통해 성과가 검증된 우수 종자는 추후 상품화도 진행한다.

- 실제로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된 큰눈영양쌀 종자는 ‘햇반 큰눈영양쌀밥’으로 상품화됐으며, 즉석밥에 최적화된 종자인 ‘중모 1017’역시 CJ제일제당 햇반의 원료 쌀 중 하나로 사용될 예정이다.

○ 이러한 활동으로 CJ는 상품화에 적합한 최적의 국산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게 됐고, 농가는 기업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소득 증대가 가능해졌다.

- 한편, CJ제일제당은 얼마 전 식품업계 최초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 동반성장지수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지난 2011년 도입

-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순 원료구매에서 지역 단위 상생협력 확산 및 종자개발 등 지속가능한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하여 CJ를 7월 상생협력 우수사례에 선정했다”며 “농업계와의 적극적 상생협력이 동반성장지수에서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훌륭한 사례”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상생협력 참여 확대를 위해 타부처 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여 왔으며, '15년도에는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에 상생협력 분야 가점을 반영하였다. 향후 공정위, 조달청 등 타부처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1

관련사진



## 한강수계 9개 댐 부유쓰레기, 전량 수거

◇한강수계 팔당댐 등 9개 댐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부유쓰레기 총 1만 3,200톤 전량 수거

◇추가 유입되는 쓰레기도 신속하게 수거하여 상수원 수질보호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합동으로 팔당댐 등 한강수계 9개 댐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총 1만 3,200톤을 전량 수거·처리했다고 밝혔다.
- 한강수계 9개 댐은 북한강과 남한강에 위치한 팔당댐, 청평댐, 황성댐, 광동댐, 소양강댐, 의암댐, 춘천댐, 충주댐, 괴산댐이다.
- 이들 댐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대부분 초목류와 생활쓰레기로 최근 2년간 댐 상류 하천변이나 둔치 등에 방치되었다가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에 의해 하천으로 흘러나와 유입된 것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은 약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와 포크레인 등 각종 청소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 댐별 부유쓰레기 발생량은 팔당댐(5,000톤), 충주댐(4,500톤), 소양강댐(3,000톤) 순이며, 특히 올해 총 발생량(1만 3,200톤)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지난해 발생량(879톤)의 약 15배에 달했다.
-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하천변 등에 남아있는 쓰레기가 호우 등으로 인해 댐에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퇴적량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수거할 계획이다.
- 또한, 쓰레기의 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하천변 쓰레기 수거작업과 함께 가라앉아 있는 수중쓰레기의 수거 작업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기존예산 16억원 외에 올해 하반기에 약 9억원의 수계 관리기금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일련의 신속하고 철저한 쓰레기 수거 작업은 쓰레기로부터 수질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을 차단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한강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댐별 발생 부유물 처리량 및 지원예산.  
2. 관련사진(주요 댐 부유쓰레기 처리현황).  
3. 질의응답. 끝.

※ 관련사진은 환경부 웹하드에 게재

**붙임 1**

**댐별 발생부유물 처리량 및 지원예산 현황**

(’16. 7. 25현재, 단위: 백만원)

구분	댐 명	‘15년 실적		‘16년 현황		비 고
		처리량 (m³)	예산액	처리량 (m³)	예산액	
합 계		879	391	13,222	394*	
1	팔 당 댐	233	150	5,000	172	
2	청 평 댐	75	47.5	120	47.5	
3	횡 성 댐	247	7	240	6	
4	광 동 댐	172	11.7	30	11.9	
5	소양강댐	54	48.3	3,000	31.3	
6	의 암 댐	2	8	230	19.2	
7	춘 천 댐	1	1.5	100	3.6	
8	충 주 댐	95	115.4	4,500	101	
9	괴 산 댐	-	1.5	2	1.5	

\* 경기도는 상수원관리지역 관리기관 일반 운영비내(1,120백만원) 장마철 부유 쓰레기 등 수거·운반처리 비용(172백만원), 기타 지자체는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사업 내 부유물 운반처리비용(222백만원)

**붙임 2**

**관련사진(주요 댐 부유쓰레기 처리 현황)**

**<팔 당 댐>**

처 리 전	처 리 후
	
<p>팔당댐 앞 부유쓰레기 전경</p>	<p>팔당댐 부유쓰레기 처리 후 전경</p>

**<충 주 댐>**

처 리 전	처 리 후
	
<p>충주호 옥순대교 밑 부유쓰레기 전경</p>	<p>옥순대교 밑 부유쓰레기 처리 후 전경</p>

**1. 지난해 보다 부유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 최근 2년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상류 하천변에 방치되어 있던 고사 초목류 등 쓰레기가 이번 집중호우로 한꺼번에 쓸려 나와 댐으로 다량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됨.

※ 발생쓰레기 성상 : 초목류 90%, 일반 생활쓰레기 10%

**2. 추가유입 쓰레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 이번 집중호우로 하천변의 쓰레기가 이미 상당부분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므로,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유입량은 현재 발생량의 20~30%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3. 하천변 쓰레기 및 수중정화활동 시행 지역은?**

-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경기도 5개(가평, 남양주, 구리, 이천, 용인), 강원도 5개(춘천, 횡성, 영월, 양구, 인제), 충청북도 1개(충주) 총 11개 시·군 한강수계 주요하천 지역에서 시행
- 수중정화활동은 서울, 경기 주요 취수장(암사, 강북, 덕소)이 분포한 팔당댐에서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사이 구간(약 13km) 한강본류에서 한강청과 특수전사령부이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9~10월)에도 실시할 예정

※ (상반기 수중정화활동 수거량) '16.6월, 페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10톤 수거

※ (기관별 수중정화활동 구간) 경기도: 팔당호(팔당상수원보호구역), 한강청: 팔당댐 하류~강동대교, 서울시: 강동대교~잠실수중보(잠실상수원보호구역)

#### 4. 추가 예산지원 9억원은 어느 분야에 지원할 계획인지?

- 수중정화활동에 3억원, 하천변쓰레기수거작업에 4억원, 팔당댐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2억원 추가로 지원할 계획임
  - 상수원 상류 하천변 쓰레기와 팔당호 유입 부유쓰레기 증가로 인한 작업인력 총원 부족분(390백만원), 댐 부유 쓰레기 수거·처리비 부족분(200백만원) 추가 지원
  - 특수전사령부 이전(송파→이천)으로 인한 대체인력(민간잠수사) 및 장비 활용 등에 필요한 부족분(306백만원) 지원

#### 5. 수거된 부유쓰레기 처리 과정은?

- 수거된 댐 부유물은 일정장소에 적치 후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당 지자체가 재활용처리시설, 소각시설 또는 매립지 등으로 안전하게 운반·처리함

## 태백산국립공원, 해발 1,000m 이상 고원지대 여름 야생화의 천국

◇국내 최대 규모의 야생화 군락지, 희귀식물도 다수 서식

◇여름 야생화 ‘일월비비추, 말나리, 동자꽃, 둥근이질풀’ 본격 개화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올해 22번째로 신규 지정된 태백산국립공원의 금대봉과 함백산 일대에 여름 야생화가 본격적인 개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태백산국립공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2종을 포함, 2,637종의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곳으로 자연생태계가 우수하다. 개병풍, 복주머니란, 기생꽃, 대성쓴풀 등 다수의 희귀식물을 포함해 1,164종의 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 특히 태백산국립공원의 금대봉과 함백산(만항재) 일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야생화군락지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서 자생하고 있는 다양한 야생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 현재 얼레지, 큰앵초, 평의바람꽃, 한계령풀 등 봄철 야생화가 지고, 여름철 야생화인 말나리, 동자꽃, 둥근이질풀, 큰까치수염, 일월비비추, 노루오줌 등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시작했다.

※ 7~8월 관찰가능 야생화: 솔나물, 여로, 마타리, 구릿대, 짚신나물, 나비나물, 터리풀, 투구꽃, 타래난초, 태백기린초, 큰땀무, 송이풀, 오이풀, 용머리, 잔대, 박새, 산수국, 산솜방망이, 각시원추리, 물레나물, 산팽의다리, 쯤팽의다리, 진범, 어수리 등

○ 금대봉 일대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탐방 4일 전에 태백관광 누리집([tour.taebaek.go.kr](http://tour.taebaek.go.kr))을 통해서 사전에 예약을

신청해야 탐방이 가능하다.

○ 탐방가능 시기는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1일 최대 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김진광 태백산국립공원 관리준비단장은 “태백산 일대는 시원한 고원 지대에서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 다양한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야생화 관찰과 함께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 탐방, 역사 속 시간여행인 석탄박물관 관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부해, 태백산국립공원을 올해 여름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생태 관광 여행지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 붙임 1. 여름 야생화 사진.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해설. 끝.

\* 관련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동자꽃



물레나물



산수국



일월비비추



(범꼬리) 만항재 야생화 개화 현황



둥근이질풀



말나리



마타리



투구꽃



어수리



터리풀



산꿍의다리



박새

### 1. 태백산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 백두대간 중심부에 위치한 민족의 영산으로, 생태·경관이 우수하고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습니다.
- (문화경관 자원) 천년 이상 제천의식이 행해지던 천제단,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 등 민족의 시원(始原)과 연관된 문화경관 자원 풍부하며,
- (자원경관 자원) 주목 군락지(겨울 눈꽃), 금대봉 생태경관보존지역 야생화 군락지(국내최대), 백천계곡(최남단 열목어 서식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생태계) 멸종위기종 22종(담비·개병풍 등)을 포함, 총 2,637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 2. 금대봉 생태경관지역 탐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전예약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사전예약 방법 : 태백관광 누리집(<http://tour.taebaek.go.kr>) → 사전예약제 신청하기(클릭) → (신청하기(클릭)) → 날짜 선택 후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탐방가능 시기는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1일 최대 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달 20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탐방 예전 4일 전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 3.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현황 및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태백산국립공원의 면적은 70.052km<sup>2</sup> 로 당초 태백산 도립공원 면적 (17.440km<sup>2</sup>) 대비 52.612km<sup>2</sup>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무등산(75km<sup>2</sup>)·북한산 (76km<sup>2</sup>)·가야산(76km<sup>2</sup>)과 유사수준, 태백산포함 22개 국립공원 중 20번째입니다.
- 2016년 4월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공원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관보 고시(환경부 고시)되었으며, 2016년 5월부터 태백산국립공원 관리준비단 구성·운영되어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2016년 8월 22일, 국립공원 지정고시 효력이 발생하며, 태백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개소와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붙임 3

#### 전문용어 해설

- **생태경관보전지역** :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 **일월비비추** : 백합과, 여러해살이풀로 산속의 물가나 습지에서 자란다. 7~8월에 개화하며 꽃은 자줏빛이 돌고 여러 개가 머리 모양으로 배게 달림
- **말나리** : 백합과, 여러해살이풀로 7월에 1~10개의 화려한 꽃이 옆을 향해 황적색으로 달려 핀다. '하늘나리'와 비슷하지만 꽃이 옆을 향해 피는 것이 다름
- **동자꽃** : 석죽과, 여러해살이풀로 6~8월에 줄기 끝과 잎겨드랑이에서 한 개씩 주황색 꽃이 핀다. 두 갈래로 갈라진 꽃잎이 5개가 있는 것이 특징
- **둥근이질풀** : 쥐손이풀과, 여러해살이풀로 6~7월에 지름 2cm 정도의 연한 분홍색 꽃이 줄기 끝에 달려 펴

## 전국 41개 대학, 청년 취업지원 위해 머리 맞댄다

7.26~7.29 온양에서 전국 41개 대학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교수 교직원 합숙 워크숍 개최

# 숙명여자대학교는 현장지향적인 진로지도를 위해 ‘눈꽃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직무별 전문가 등을 멘토로 초빙해 정기모임과 기업탐방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진로탐색과 경력설계를 도와준다. 예컨대, 유통마케팅에 관심있는 학생은 의료업체 대표가 멘토로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식이다. 멘토는 CEO, 동문선배, 교수 등 3개 그룹으로 나뉘었다. 학생들은 주제나 대상별로 관심있는 그룹을 골라 참여하면 된다. 숙명여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관계자는 “눈꽃멘토링은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의 멘토들을 만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좋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영산대학교 학생들은 4년에 걸친 체계적인 진로지도 시스템인 YCMP(Youngsan Career Map Program, 학생 진로지도 시스템)을 통해 신입생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맞춤형 진로지도 받고 취업을 위한 역량도 쌓을 수 있다. YCMP는 전공과 학년을 고려한 다양한 진로취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YCMP는 학생들에게 △전공 및 적성을 고려한 진로설계 및 학년별 목표관리 △학년별 진로지도교과목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상담, 경력개발관리, 취업지원을 통합한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영산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관계자는 “대학 4년간의 목표관리 및 진로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천대학교는 인문·사회·법정계열에 특화된 글로벌 비즈니스 트랙별 해외취업지원 모델을 운영한다.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프로젝트매니저, 기후금융/녹색투자전문가, 미국(중국)통상법률전문가 등 희망 취업분야 트랙별로 교과-비교과 통합 진로취업지원을 실시한다.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은 ‘글로벌지식리더십’ 트랙에 들어가 국제기구와 글로벌거버넌스 등의 핵심교과를 수강하고 국제기구스터디에 참여한다. 미국통상법률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글로벌법경제’ 트랙을 선택하여 국제무역과 국제투자 등의 핵심교과를 수강하고 법경제스터디에 참여한다. 각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6개월 이상 선진국 대학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준다. 인천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안에는 해외취업 전담인력을 뒀 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앞선해주고 있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충남 온양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41개 대학에 설치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담당 교수 및 교직원 100명이 참여하는 합숙 워크숍을 개최 한다.
- 참가자들은 각 대학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경험 및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대학생 진로·취업지도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한 청년고용지원 강화 등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 워크숍은 각 대학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직원이 영역별 우수사례를 발표한 후 참가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된다.

○ 숙명여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최성희 팀장)는 지역 기업체와 동문을 활용하여 여대생 생애설계를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학생 경력개발지원을 위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 영산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이재영 센터장)는 신입생부터 4학년 까지 학년별로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영산커리어맵 프로그램(Youngsan Career Map Program)」과 「전공 학과 교수 중심의 진로지도 운영체계 구축 사례」를 소개한다.

○ 인천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이찬근 교수)는 「인문계열 대학생 해외진출 역량 강화 사례」라는 제목으로 인문·사회·법정계열 글로벌 비즈니스 트랙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발표한다.

\* 주요 대학 사례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는 △청년고용 정책의 이해와 활용 △원스톱 맞춤형 진로취업지도 방안 △NCS의 취업지원 활용 △역량기반 진로지도 전략 △대학현장에서의 진로상담 사례(워크넷 활용) 등을 주제로 노하우를 공유한다.

□ 한편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와 대학·지자체가 매칭하여 대학 내에 설치한 진로 및 취·창업 통합 지원기관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대학생과 인근 지역 청년들이 대학 내 진로·취·창업지원 서비스와 정부 청년고용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친화적 원스톱 청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 전국 41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현황은 【붙임2】 참조

- 고용부 지원을 통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41개 대학은 ‘진로상담-진로교육-직무체험·실습·인턴 등 일경험 연계-기업 및 직무탐색-직무역량 강화 교육-취업지원 및 취업처 연결’ 서비스를 청년이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내 전문 인력을 갖추고 대학시스템 등을 재편하고 있다.
- 유길상 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민·관·학이 협력하여 청년들의 취·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관계자들이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 “대학관계자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청년 진로취업지도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는 만큼, 대학생과 청년이 더욱 양질의 청년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 숙명여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지역사회 및 졸업생 네트워크를 활용한 여대생 경력설계 및 커리어비전 강화 사례**

○ 재직자 및 CEO를 활용한 여학생의 경력포부 수준 강화 및 생애경력설계 수립 지원 실시

- CEO 및 전문가로 활동하는 지역사회 전문가와 졸업생재직자를 활용하여 여대생 특성에 맞는 장기적이고 현장지향적인 진로 상담과 지도 제공
- 1~3학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주제별 그룹멘토링을 10회차 이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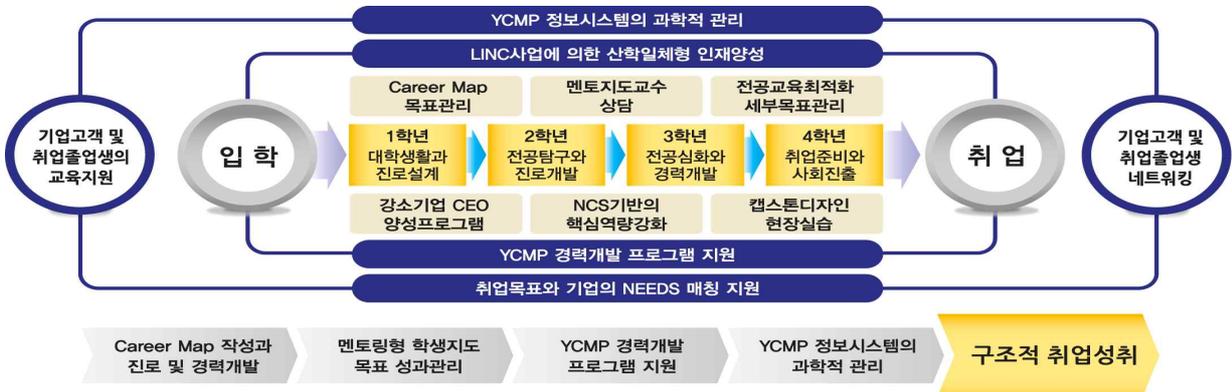
여대생 진로탐색 및 경력설계를 위한 구조화된 멘토링프로그램(눈꽃멘토링) 운영			
CEO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체 CEO 및 임직원 등 지역사회 인사 및 지도자가 여대생의 커리어비전 강화 및 직무 탐색과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멘토단으로 섭외하여 정기모임 및 기업탐방 등 추진</li> <li>• <b>한학기 또는 1년 과정</b>을 거쳐 수료</li> <li>• 주제별 다양한 멘토링그룹 운영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주제: 서비스경영, 뷰티산업진출하기, 여대생 경력개발코칭, 외국계기업취업준비 등</li> <li>- 예시 CEO멘토링 개요(하단표)</li> </ul> </li> </ul>		
	멘토주제	멘토	멘토링 내용 개요
	유통마케팅분야 전문가가 되는 길	00의류업체 000대표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서의 변화와 준비, 유통마케팅의 개요, 00브랜드를 통한 유통마케팅의 고찰, 이너웨어패션 유통업계 전망, 유통업계 현황과 진출을 위한 역량 개발 등
동문선배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문선배 재직자와 재학생이 그룹멘토링(다:다)을 통해 진로탐색 및 생애설계를 위한 조언 제공을 하도록 운영</li> <li>• 유사 업직종의 선배 멘토그룹이 재학생들에게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사례와 이슈에 대해 풍성한 조언을 제공하도록 함</li> <li>•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그룹멘토링을 통해 저학년 단계에 생애진로설계를 하고,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li> <li>• 출산육아 등 여성의 주요 생애과업들을 경험하면서도 지속적·장기적으로 경력을 유지하고 있는 멘토들이 동문 후배들과 공감을 형성하며 멘토링 제공</li> <li>• <b>한 학기 동안 총 10회 가량 미팅</b></li> </ul>		
교수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수 1인이 멘토, 학생 8~10명이 멘티</b>가 되어 학기별로 1학점 과목으로 개설</li> <li>• 교수들이 학과 학생들의 진로 관심사에 따라 <b>진로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b></li> <li>• <b>교양 1학점, 재학중 2회</b> 참여 가능</li> </ul>		

- 장기적이고 구조화된 그룹 멘토링의 제공으로, 여대생이 다양한 이슈를 고민하여 다양한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다양한 영역의 여성재직자의 멘토링을 통해 공무원·교사 등의 소극적 직업관을 가지고 있던 여대생들이 외국계기업, 직무별 전문가 등 다양한 영역의 경력비전을 설정하며 양질의 취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로 이어지는 효과

## <2> 영산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영산커리어맵프로그램과 전공 교수 중심의 진로지도 운영 체계 구축

### ○ YCMP (Youngsan Career Map Program) : 학생 진로지도 시스템

- 2004년부터 YCMP를 도입하여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 4년간의 목표관리 및 진로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음
- YCMP는 Career Map, 멘토링형 학생지도교과목, 경력개발 프로그램, YCMP 정보시스템으로 구성
  - \* Career Map: 전공 및 적성을 고려한 진로설계 및 학년별 목표관리
  - \* 진로지도교과목: 1~4학년 필수, 적성검사, 역량진단, 진로상담, 경력개발
  - \* 경력개발프로그램: 진로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 \* YCMP정보시스템: 학생상담, 경력개발관리, 취업지원을 통합한 정보시스템



### ○ 전공 학과 교수 중심의 멘토링형 학생지도 교과목 운영

- 멘토 역할을 하는 전공 지도교수가 운영하는 학생지도교과목으로 매학기 전공필수로 개설하여 대학생활 및 진로개발의 전 과정을 밀착 지도하고 YCMP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함
- 멘토링형 학생지도의 핵심은 학과 특성을 살린 진로/취업 교과목 운영, 학생 개인별 멘토지도교수에 의한 밀착지도와 상담임
- 1~2학년 단계에서는 대학생활 및 진로지도, 3~4학년 단계에서는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중점

학년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습목표	과제
1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1	30	대학생활적응, 동기부여, 비전설정	진단검사, Career Map, Vision Tree
2	전공탐구와 진로개발	1	30	전공학업능력 및 직업기초능력	SWOT분석, 자격증공모전 계획
3	전공심화와 경력개발	1	30	핵심직무역량 및 기업현장경험	희망직무보고서, 경력개발 사례발표
4	취업준비와 사회진출	1	30	취업 및 사회진출 준비 완료	기업조사보고서, 채용서류, 구직표

### <3> 인천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인문계열 특화 해외취업지원 사례

#### ○ 인문계열 특화 글로벌트랙별 해외취업지원 모델 구축 운영

- 인문·사회·법정계열 글로벌 비즈니스트랙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성·운영

트랙		글로벌지식리더십	글로벌지식서비스	글로벌기후환경에너지	글로벌법경제
트랙별 설계	취업분야	국제기구 행정인력 공공부문국제화실무자 글로벌기업일반관리자	프로젝트매니저 애널리스트/컨설턴트 글로벌서비스기업 전문 실무인력	기후금융/녹색투자전문 실무인력 MVR전문가	미국통상법률전문가 중국통상법률전문가
	핵심교과	국제기구와 글로벌거버넌스 영미법과 대륙법 e-거버넌스 국제경제와 국제금융	민관협력 회계재무분석 무역물류유통 국제상거래법 국제이벤트관리	개발과 환경 기후환경에너지 정책분석 기후환경에너지 공학 기후금융과 녹색투자 MVR실무	국제무역과 국제투자 중국경제와 중국법 계약과 재산권 지적소유권 사업화와 기업법
	스터디	국제기구스터디 공공부문스터디 글로벌기업스터디	PM스터디 비즈니스스터디 서비스산업스터디	기후정책스터디 기후금융스터디 MVR스터디	법경제스터디 영미법스터디 중국법스터디
학년별 체계적 교과- 비교과 통합 진로 취업 지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진로탐색,설계지원		국제화기초역량강화	국제화심화역량강화	국제화사회진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로교육설계</li> <li>영어몰입교육</li> <li>국제화소양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트랙별 기초교육</li> <li>국제계절학기운영</li> <li>비교과 트랙/분야별 그룹스터디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화 전공트랙별 심화교육</li> <li>국제계절학기·현장체험 지도</li> <li>트랙별 스터디 밀착 지도</li> <li>K-Move 등 연계 통한 해외인턴십, 제휴대학 교환학생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화 사회진출교육 실시</li> <li>영문에세이 특강 등 해외취업기술 강화 지원</li> <li>국제전문자격증 취득지원</li> <li>K-Move 연계 통한 해외취업알선 지원</li> </ul>

- 글로벌 취업지원 특화 트랙 개발 후, 학년별로 체계적 역량 개발이 가능하도록 교과·비교과 영역의 통합적 지원 실시, 개인별 맞춤형 진로지도
- 송도국제도시 특성과 인력수요에 기반한 글로벌 트랙 설정
- 이수 대학생 전원 6개월 이상 선진국 중위권 대학 및 중견기업 위주 해외 파견(15개 해외협력대학 네트워크 구축, 20여개 국제기구/다국적기업/NGO와 인턴십 협정 체결)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내 해외취업 전담인력 배치, 교내외 유관기관 상호협업을 통한 진로상담, K-Move스쿨과 연계한 해외인턴 및 해외취업알선 진행

\*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http://www.work.go.kr/jobyoung)) ‘원스탑 취업지원’ 코너에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연락처와 약도 확인 및 서비스 신청 가능

	지역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연락처	
1	서울	서울 종로구	상명대학교	02-2287-7088
2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02-2077-7136
3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02-2049-6357
4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02-2173-2145
5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02-920-7140
6	부산	부산 영도구	고신대학교	051-990-2139
7		부산 부산진구	동의대학교	051-890-2958
8		부산 남구	경성대학교	051-663-5341
9		부산 금정구	부산외국어대학교	051-509-5951
10		부산 사상구	신라대학교	051-999-5550
11	대구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학교	053-650-9142
12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학	053-940-5661
13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053-580-8872
14	인천	인천 남구	인하대학교	032-860-7082
15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032-835-9613
16	광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062-530-4131
17	대전	대전 서구	배재대학교	042-722-2400
18		대전 대덕구	한남대학교	042-629-7171
19	울산	울산 남구	울산대학교	052-220-5749
20	경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031-219-3263
21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031-249-9493
22		경기 성남시 수정구	가천대학교	031-750-5992
23		경기 평택시	국제대학교	031-612-9274
24		경기 시흥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031-8041-0122
25	강원	강원 강릉시	가톨릭관동대학교	033-649-7159
26	충북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043-261-3555

27		충북 제천시	세명대학교	043-649-7389
28	충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교	041-550-8725
29		충남 청양군	충남도립대학교	041-635-6644
30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대학교	063-220-4651
31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063-850-5319
32	전남	전남 나주시	동신대학교	061-330-6451
33		전남 무안군	목포대학교	061-450-2905
34	경북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대학교	054-260-1896
35		경북 경주시	동국대학교(경주)	054-740-4986
36		경북 구미시	구미대학교	054-440-1480
37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	053-850-5602
38	경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문성대학교	055-279-1057
39		경남 김해시	인제대학교	055-320-3744
40		경남 양산시	영산대학교	055-380-9160
41	제주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교	064-754-2302

## 다문화가족자녀 여름방학은 ‘다(多)재다능 프로그램’ 과 함께

- 문화·직업체험·가족캠프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제공 -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여름방학 기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체험, 문화활동 프로그램인 ‘다(多)재다능 프로그램’을 전국 81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 ‘다(多)재다능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며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이다.
-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7~8월 다문화청소년 및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가신청을 받는다.
- ‘엄마나라 문화교실’ 등 부모나라 모두의 문화와 언어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교과서 밖 구석구석 문화탐방’ 등 역사기행, 다양한 직업체험 및 음악·미술·컴퓨터·과학 등 교양프로그램 등이 마련됐다.
- 또한 부모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캠프, 부모자녀 체험활동 등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관계향상 증진을 꾀한다.
-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다누리(www.liveinkorea.kr) 홈페이지 또는 각 센터 전화문의를 통해 가능하다.
- 대구 북구 센터를 통해 올 초부터 학기 중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김 ○ ○ 양(12세) “일주일에 한번 센터에 나와 엄마나라 말 배우기에 참여한 덕분에 엄마나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함께 여행하고 싶은 목표가 생겼다”며,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1박 2일 과학캠프도

참여할 계획인데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내 다문화가족 자녀는 2015년 현재 20만 7천명으로, 다문화가족의 국내 정착기간 장기화로 학령기 자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성장주기별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다문화가족 자녀 수 : ('11년) 151,154명 → ('13년) 191,328명 → ('15년) 207,693명

\* 다문화학생 수 : ('11년) 38,678명 → ('12년) 55,780명 → ('15년) 82,536명

- 이와 관련해 **최은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장**은 “우리사회가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자라나는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 “다(多)재다능 프로그램이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들이 가진 강점을 잘 개발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붙임】 1. 다(多)재다능 프로그램 사업개요

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多)재다능 여름방학 프로그램 현황

# 붙임 1 다(多)재다능 프로그램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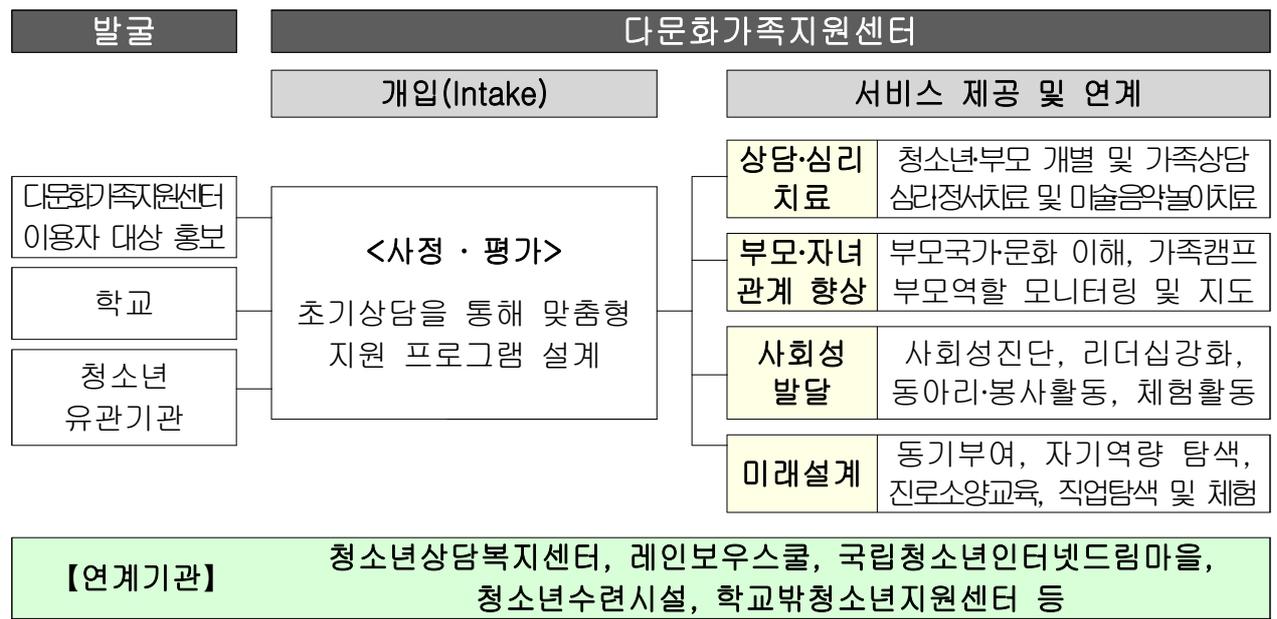
## □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의 국내 정착 장기화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에 대비한 성장주기별 자녀 지원 대책 필요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 및 부모, 중도입국청소년
- 수행기관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81개소
- 소요예산 : 센터 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상담,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다문화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사회성 발달, 리더십 개발 등이 가능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 상대적으로 자녀양육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가족 부모를 대신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자녀양육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

## □ 추진체계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망 구축 에 민간·공공 협력 협약**

- 위급상황 발생 시 통신사에서 위치정보 받아 유비쿼터스 도시(U-City)센터가 즉각 대응, 스마트 시티 기술로 사회적 약자 보호 서비스 제공 -

현 행	개 선
위급상황 알람 시 보호자가 휴대폰 등으로 위급상황 인지 후 경찰서·소방서에 신고	→
	알람시 U-City센터가 통신사에서 신고자 위치정보, 사진 등을 실시간 제공받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상황파악 후 경찰서·소방서에 신고 또는 상황정보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안양시, 오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SK텔레콤(주) 등과 7.20 일(수) “사회적 약자 보호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아동·여성·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범죄·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유비쿼터스 도시(U-City) 통합운영센터\*(이하 유시티 센터)가 통신사에서 위치정보, 사진 등을 제공받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현장상황 파악 후 경찰·소방기관에게 이를 알려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 유시티(U-City) 통합운영센터 : 방법·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 단위의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

□ 현재에도 아동, 여성, 치매환자, 독거인 등의 위급상황 대처를 위해 민간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상황 발생 시 비전문가인 보호자(부모)가 대응하게 되어 적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면,

- 이번 업무 협약(MOU) 체결로 긴급상황 발생 시, 도시를 24시간 관제하는 유시티(U-City)센터가 통신사에서 위치정보 등을 제공 받아 전문적으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시티(U-City)센터-통신사 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된다.
- 또한,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경찰청, 국민안전처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온 유시티(U-City)센터와 112.119센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간 연계사업이 이번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과 함께 운영되어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부와 경찰청('15.7), 국토부와 안전처('15.9)는 유시티(U-City)센터와 112·119센터 등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대전시에서 시범사업 추진 중

- 특히, 위치추적 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원서비스로 교육부에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어린이 U-안심 알리미 서비스\*'와 보건복지부에서 치매노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어, 이번 협약 사업으로 이러한 서비스 이용자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 어린이 U-안심 알리미 서비스 이용자('15.9, 교육부) : 39,669명

\*\* 배회 감지기 보급 건 수('16.6, 국민건강보험공단) : 34,522명

-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성독거인, 도서 벽지의 학교.우체국.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여성근무자와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관련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앞으로 이 서비스의 수혜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 170개 유시티(U-City)센터(폐쇄회로

텔레비전 관제센터 포함)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과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여 15분 ‘골든타임’ 내 신속한 현장출동과 상황대응이 가능해졌다”면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긴급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등 한 단계 발전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에너지.환경.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 스마트 시티 모델로 육성하여 해외시장 진출에도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SK텔레콤 권송 IoT솔루션 부문장도 “이번 민간과 공공의 협업을 계기로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주차장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새로운 도시형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시공간에서 구현.확산하는 시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한편, 이번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해당 서비스 가입 시 위치정보, 사진, 성명, 전화번호 등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올해 중 세종시, 안양시, 오산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

## □ 서비스 개요

- 아동·치매환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U-City센터가 통신사로부터 위치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히 소재를 확인하여 긴급구조 등 골든타임 확보
- 치매, 중증장애인 등은 사전 신상정보 확보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
- \* 공공기관 CCTV 보유현황(범죄예방) : 291,438대('15.3 기준)

## □ 기대효과

AS-IS	TO-BE
· 위급상황 알람 시 보호자가 휴대폰 등으로 위급상황 인지 후 경찰서·소방서에 신고	· 알람 시 U-City센터가 통신사에서 신고자 위치정보, 사진 등을 실시간 제공받아 CCTV로 상황파악 후 경찰서·소방서에 신고 또는 상황정보 제공

## □ 서비스 시나리오

- ① 위급상황 시(실종, 범죄 등) 통신사에서 U-City센터로 알람과 함께 보호 대상자의 신상정보(사진, 보호자연락처 등), 위치정보를 전송
- ② U-City센터는 본인과 통화 및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상황파악
- ③ 112센터, 119센터 등에 긴급출동 요청
- ④ 현장 상황을 지속 추적하여 출동 경찰관 등에 상황정보 전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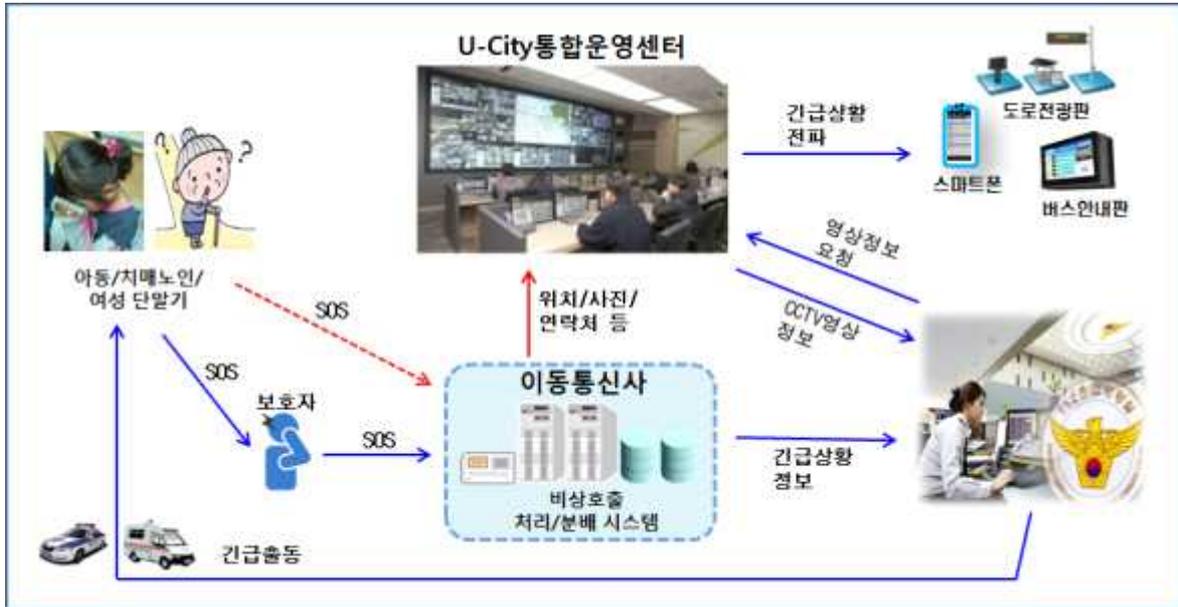
**참고2****U-City통합운영센터 및 CCTV 설치현황**

## □ U-City 통합운영센터

- 방법, 교통, 시설물관리 등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센터

※ U-City 통합운영센터 구축현황(CCTV센터 포함)

(단위 : 시군구 개수)



구분	'10	'11	'12	'13	'14	'15	비고
구 축	26	34	27	33	28	22	
누 계	26	60	87	120	148	170	

\* 출처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지원과, 02-2100-3929)

## □ 공공기관 CCTV 설치 현황

- '05년부터 CCTV가 교통소통, 위반차량 단속 외에 범죄예방, 시설물 관리 등에 폭 넓게 활용되며 설치대수가 급격히 증가(연평균 20.7% 증가)

(단위 : 대/누계)

설치목적	2010	2011	2012	2013	2014	비 고
합 계 (증감 %)	309,227 (28.1)	364,302 (17.8)	461,746 (26.7)	565,723 (22.5)	655,030 (15.8)	
범죄예방	107,258	141,791	188,168	260,098	291,438	
시설안전	192,662	207,343	249,947	278,002	332,581	
교통단속	6,288	11,636	15,046	17,111	18,927	
교통정보수집	3,019	3,532	8,585	10,512	12,084	

\* 출처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부서명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104)

### 참고3

사회적 약자 보호 연계시스템 구축 업무협력 합의서(안)

사회적약자 보호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 업 무 협 력 합 의 서

- 국토교통부 · 행복청 · 세종시 · 안양시 · 오산시 · LH · SKT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 세종특별 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함), 안양시, 오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와 SK텔레콤(주)(이하 “SKT”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U-City 센터”라 함)를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 긴급 구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증진과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 합의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U-City 센터와 통신사의 정보시스템 연계와 상호 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국토교통부, 행복청, 세종시, 안양시, 오산시, LH 및 SKT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어린이.여성.치매환자.독거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사고.실종 등 긴급 상황정보 제공,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2. 사회적 약자 긴급 구호를 위해 정보시스템 연계서비스의 개발과 적용, 연구.개발, 시범사업 및 확산사업 추진

**제3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행복청.LH.SKT는 세종시.안양시.오산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 연계시스템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한다.

② 본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본적인 비용의 분담은 다음과 같다.

1. 연계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와 SKT가 부담한다.
2. 연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각 기관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3. 통신망 사용에 발생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기타 시범사업 및 확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비밀유지)** 각 기관은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 본 합의서는 서명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일방이 서면으로 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016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강 호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 장 이 충 재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시 장 이 춘 희

---

안 양 시  
시 장 이 필 운

오 산 시  
시 장 광 상 욱

한국토지주택공사  
사 장 박 상 우

SK텔레콤(주)  
사 장 장 동 현

---

**강릉 금진항, 수산물 유통 및 관광 중심지로 새단장**

**- 4년간 250억원 투자... 노후시설 정비, 접안시설 확충 등 강릉지역 수산물 유통·판매, 해양관광 거점 어항으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오는 7월부터 강원 강릉시 금진항을 수산물 유통, 판매 및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강릉지역 거점어항으로 정비한다.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 1989년 완공된 금진항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정동진 해돋이공원, 옥계·금진 해수욕장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는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자연재해에 대응한 안전성 강화, 어업인 근로여건 개선, 지역어민 편의시설 확충 등 어항시설 정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금진항이 수산물 유통·판매 및 해양관광과 해상교통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강릉지역 거점어항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국비 약 250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어항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접안시설을 확충하며, 상시 어선 접안을 위한 항내 준설을 하는 한편,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그리고 방파제를 833m 보강하여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수역을 확보하고, 어획물 양육을 위한 물양장도 315m 규모로 개축하여 위판과 보급을 위한 부지 12천㎡를 확보함으로써 수산물 처리여건을 크게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할 경우 관광수요도 창출되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금진항 정비로 낙후된 어촌지역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강릉지역 중추 거점어항으로 새로운 어촌·어항 관광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사개요

- 총공사비 : 24,899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년('16~'20)
- 사업규모 : 물양장개축 315m, 호안 160m, 돌제 70m, 방파제 보강 623m, 방사제 보강 210m, 준설 1식, 친수시설 1식, 부대공 1식, 건설사업관리 1식,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등

□ 개발연혁

- 1971 : 국가어항 지정
- 1989 : 어항 기본시설 완공
- 2015 : 금진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6.7월 : 공사 착공(예정)

□ 계획 평면도



# □ 조감도150

## Zone별 추진계획

**A-zone 어촌의 향수** 관광객 맞이를 위한 기존주차공간 개선 및 자전거동선 조성  
 문화복지공간 관광/조경시설, 자전거동선, 주차장

**1 기존시설 [공원, 주차장]**  
 - 광장, 쉼터, 녹화 등 휴게시설 및 자전거동선 포함

**2 자전거도로**  
 - 자전거동선 조성(시인성 개선·정비)

**B-zone 삶의 향기** 시설정비를 통한 쾌적한 어업환경 조성  
 위안장, 어구건조/아직집/어업용상고, 수산물유통/판매/보관시설, 문화복지시설

**1 방파제 그늘쉼터**  
 - 방파제연결동선 및 하부 그늘쉼터 조성

**2 어민쉼터**  
 - 어민들의 간이 쉼터(파고라, 벤치) 조성

**3 주차장**  
 - 화장실과 인접한 주차 공간 조성

**C-zone 바다를 향함** 어민, 관광객의 안전한 친수환경을 위한 시설 조성  
 방사재, 해안데크길, 방파제, 돌제

**1 전망데크**  
 - 친수동선 및 항 내측 전망공간 조성

**2 돌제 쉼터**  
 - 어민편의를 위한 쉼터 조성